



[갤럭시Z플립]
한손에 쏙
컴팩트 사이즈
30분 새 완판
02



Economy

코스피 2243.59 (0.00)	코스닥 688.91 (0.00)
금리 (미국 3년) 1.33 (+0.06)	환율 (원-달러) 1183.00 (+0.20) (14일)

아무도 책임 안지는 ‘라임 사기극’ 소송에 내몰린 고객-증권-판매사

“라임-신한금투 ‘펀드조작’”
금감원, 檢에 사기·배임 통보
피해 투자자 소송 봇물 예상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른바 ‘라임 사태’로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공중분해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라임과 공모해 펀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등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고, 총수익스와프(TRS)를 둘러싼 판매사와 증권사 간 분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를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로 규정, 법무법인과 함께 소

송에 나선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 보상까지는 까마득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과 판매사를 고소한 투자자는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34명, 법무법인 한우리를 통해 3명 등 총 37명이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는 현재까지 2명으로 알려졌다.

한우리는 현재까지 고소와 소송 관련 상담을 의뢰한 투자자가 150여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소인 수가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라임 사태, 증권사와 공모?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과 신한금투를 사기 및 배임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

2018년 6월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 펀드) 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일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된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고도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 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에 부실을 전가하고 수익률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수탁사가 보낸

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IIG운용역의 사망과 IIG책임자의 회피 등으로 IIG펀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IIG펀드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2019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공식 발표 이후에야 알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신증권은 반포자산관리(WM)지점 장 모 전 지점장의 일탈이 문제가 됐다. 라임 펀드 조성 단계부터 본인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다. 실제 해당 지점에서만 4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가 판매됐다.

(3면에 계속)

/송수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고공의 늦겨울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광화문 경복궁이 내린 눈으로 하얗게 변해 있다. /연합뉴스

평균근속 11년8개월, 임원 1000명 중 8명 쫓

(4만명 중 332명)

④ 데이터로 보는 10대 기업

⑥ LG전자 (下)

근속연수 매년 꾸준히 늘어나
기간제 근로자 1.43%, 581명

2020년은 LG전자의 세대교체가 시점에 오르는 해다. 43년간 몸담으며 ‘세탁기 장인’이란 별명과 함께 ‘가전 신화’를 일궈낸 조성진 부회장은 지난해 말 은퇴했다. 대신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새 최고경영자(CEO)로 부임했다.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한 것은 2014년 오너가 일원 구분준 대표(현 LG그룹 고문) 체제 이후 6년만이다. 40대 젊은 총수 구광모 LG그룹 회장(41)이 50대 CEO 권 사장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자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하는 스마트폰 사업을 회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근속연수 11년 8개월... 계약직 1.4%

16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LG전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1년 8개월로 국내 전자 업계에서 가장 길다. 다른 업종 대기업과 비교해 봐도 안정적인 편에 속한다. 남직원인 13년 6개월로 여직원(10년)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HE(휴먼터레인먼트)부문이 13년 8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B2B 사업을 맡은 BS부문이 10년으로 제일 짧았다.

근속연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8.1년에 불과하던

여직원 근속연수는 3년 만에 2년 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남직원 근속연수 역시 2년 늘었다.

기간제 근로자는 총 581명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LG전자 전체 근로자 4만 554명의 1.43% 수준이다. 2018년 말 전체 종업원 3만 7698명 중 552(1.46%)명이었던 것과 큰 변화 없었다.

총임원수는 332명이다. 등기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회 위원이 3명, 미등기임원이 32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직원(4만 590명)의 0.8% 수준이다. 등기이사 2명은 지난해 3분기까지 인당 평균 22억 7300만원을 수령했다. 2018년 평균 지급액인 22억 93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3분기 만에

받았다. 2017년에는 인당 평균 18억 3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신규인사에서 30대 임원이 3명이나 발탁돼 눈길을 끌었다. 그중 가장 높은 관심이 향했던 이는 조셉 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컴퓨터공학부 교수. 과거 33세의 젊은 나이로 USC 컴퓨터공학부 교수 자리를 맡아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외부 인사를 곧바로 임원 자리에 앉힌 것은 인공지능(AI) 기술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구광모 회장의 의지로 읽힌다. LG전자는 북미·러시아·캐나다 등 연구 개발 거점을 두고 AI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

社告

미디어의 새 길 메트로와 함께!

2002년 월드컵의 합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가지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를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는 매체 다변화 시대를 적극 주도하기 위해 온라인과 지면의 동시발행이란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기사, 인공지능(AI) 도입 등 개방형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트로는 독자와 함께 하며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18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수습기자 채용 안내 -

- 모집부문 : 취재(뉴메트로 공채 6기 수습기자)
- 모집내역 : ①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취재 역량평가 ▲ 3차 : 면접(블라인드 방식)
- ② 모집인원 : 0명
- ③ 응시자격 : 대학 이상 졸업자(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 우대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본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지원서와 수험표 부착)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 2020년 2월 4일(화) ~ 2020년 2월 19일(수)
 -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2월 19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췌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월 21일(금) 본지 웹 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시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 (전화 02-721-9826)

metro

ESS 화재 진실공방 정부 주먹구구식 조사 의혹

5사 제작 종합시스템에
‘배터리 책임론’만 강조

국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던 ESS화재가 ‘배터리 이상’으로 결론났지만 부실조사가 아니었는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2차 ESS화재 사고 조사단은 1차 조사 결과를 뒤엎고 ‘배터리 이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기업 간 ‘진실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취재 결과, 전기 안전공사 측은 해외 화재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내용 공개하기 보다 숨기는데 급급한 모습이며, 2차 조사단은 해외 사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배터리 화재’를 제조사의 원인으로 결론

지었다. 국내 ESS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결론내야 할 정부가 외려 부실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차 ESS 화재 사고 조사단은 지난 6일 ‘배터리 이상’을 화재의 원인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그러나 ESS(에너지저장시스템)은 배터리 외 전력변환장치(PCS) 등 부품업체와 운영시스템(EMS), 관리시스템(BMS), 설치·시공업체 등 4~5개 업체가 함께 만드는 종합시스템인데도 배터리에만 집중해 책임소재를 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 및 관리 등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는데 ‘배터리 책임론’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6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

한손에 쏙 ‘컴팩트 사이즈’... 30분새 완판 ‘플립 돌풍’

삼성 ‘갤럭시Z플립’ 출시

코로나19에 ‘온라인 마케팅’ 강화
165만원대 ‘가격 안정’, 2개 색상
갤럭시S20, 20일 사전예약 실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 플립형 폴더블(화면이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소비자들과 대면접촉을 해야 하는 대대적인 오프라인 체험 행사를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1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와 자급제 물량을 합쳐 국내에 풀린 갤럭시Z플립 초도 물량은 약 2만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온라인 채널에서는 출시 첫날 오전 중 전량 판매를 기록하며, 젊은 세대를 위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고객들이 ‘갤럭시Z플립’을 사용하고 있다. /KT

전자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의 경우 지난해 출시 초기 수백~수천 대만 한정 판매돼 품귀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갤럭시Z플립은 접었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가 특징으로, 출고가는 165만원이다. 색상은 미리 퍼플, 미리 블랙 등 두 가지다. 특히 출고가 239만원에 달했던 ‘갤럭시폴드’와 달리 가격이 165만원대로 낮아지며,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도 낮아질 것을 예상된다.

개통 첫 날인 지난 14일 LG유플러스의 공식 온라인몰인 ‘U+Shop’에서 갤럭시Z플립 초도 물량이 30분만에 전량 판매됐다. U+Shop에서는 오전 8시 50분부터 갤럭시Z플립 판매를 시작해 초도 물량 완판 후에도 현재 2차 예약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완판 이후 가입을

신청한 고객의 개통은 2차 물량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SK텔레콤은 온라인샵 T월드다이렉트에서 갤럭시Z플립을 구매하면, 갤럭시Z플립 전용 아라리 케이스 2종을 증정한다. T월드다이렉트에서 ‘오늘도착’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갤럭시Z플립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 전문 상담사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 개통부터 데이터 이전까지 마무리해 준다.

KT의 온라인몰 KT샵에서는 ▲KT 멤버십 포인트 ▲제휴 포인트 ▲KT샵 모바일 상품권 ▲문화상품권을 활용해 저렴하게 갤럭시Z플립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KT샵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KT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고객 케어 서비스 ‘여기오지’를 제공한다. 여기오지를 통해서도 중고폰 보상, 빠른 배송 & 개통, 데이터 백업, 필름 부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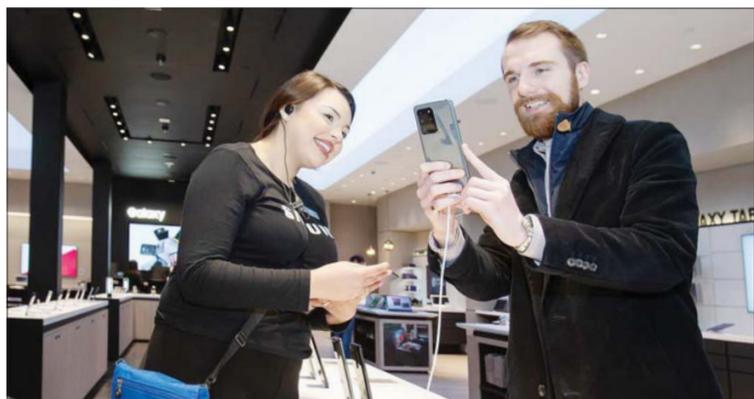
LG유플러스는 자사 온라인몰 U+S

hop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무선 충전 패드, 차량용 충전기, 보조 배터리 등 다양한 사은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갤럭시Z플립 이용자를 위해 신규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을 오는 20일 출시한다. ‘폴드 분실·파손 190’은 휴대폰 분실 또는 파손 시 손해액의 20%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최대 190만원까지 보상을 준다. 월 보험료는 7700원으로 보상한도 대비 크게 최저 수준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내달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20’ 단말 개통 행사도 취소하며,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이다. 갤럭시S20은 20일 사전예약을 시작해 27일 선개통을 거쳐 내달 6일 출시된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지난 6일 ‘신규 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통해 갤럭시S20 사전예약기간을 기존 14~28일(15일간)에서 20~26일(7일간)로 줄이고 공시지원금을 정식 출시일까지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애플 심장부 美 실리콘밸리에 문 연 삼성 체험매장
매장에서 고객이 갤럭시 S20 울트라를 체험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
/삼성전자

현장에서

‘갤럭시Z플립’ 출시... 오프라인 반응 살펴보니

“폴더폰 감성에 기능까지 빠지는게 없어” 저렴한 가격+휴대성, 소비자들 ‘엄지척’

소비자 “디자인·기능 모두 만족”
광고 보고 관심, 대부분 구매 의사
가볍고 원하는 각도로 접혀 매력

갤 폴드 比 물량 10배 많지만
조기 소진에 없어서 못 팔아
향후 구매자 더 기다릴 수도



갤럭시Z플립을 접었을 때(왼쪽)와 펼쳤을 때의 모습. /구서윤 기자

‘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 82세 남성

해외여행력 無, 확진자 접촉도 없어
심장질환 검사차 병원방문 후 확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9시 기준 29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는 총 29명으로 늘었다. <관련기사 4면>

중대본과 의료계에 따르면 29번째 환자(82세 남성, 한국인)는 해외여행력이 없고, 앞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도 아니다. 이 환자는 당초 동네병원에 방문했다가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전날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해외 여행력이 없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가지 않았다. 의료진은 심장질환을 검사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었고, 판독 결과 폐렴이 확인됐다. 과거 메르스를 경험했던 의료진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자 병원 은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서울대병

원)에 격리됐다.

중대본은 29번째 환자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29번째 환자는 고대안암병원에 가기 전 개인 의원을 2곳 정도 들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곳에서 실제 어떻게 진료가 이뤄졌는지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환자가) 감염력(전파력)이 있었던 시기였는지에 대한 조사와 소독이 완료되면 (병원명 등) 세부사항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현재 29번째 환자의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서 발생한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이 환자의 접촉자도 파악하고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인 아내는 특이 증상이 없는 상태다. 두 사람의 거주지는 서울 종로구다.

신규 환자가 발생한 건 확진일(10일) 기준으로 7일째, 정부 발표일(11일) 기준으로는 6일째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이 출시된 가운데 실물을 보려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판매점에 몰리고, 온라인에서는 제품이 조기 품절되는 등 초반 관심이 뜨겁다. 저렴한 가격과 휴대성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요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출시일인 14일 오후 2시경 삼성디지털프라자 흥대점을 찾아 소비자 반응을 살펴봤다.

매장 내부는 갤럭시Z플립과 ‘갤럭시S20’ 시리즈를 체험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삼성디지털프라자 관계자는 “평소에는 사람이 이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신제품을 직접 보기 위해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4대가 전시된 갤럭시Z플립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첫번째 폴더블 폰인 ‘갤럭시폴드’와 함께 전시해 두 제품 간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갤럭시노트9을 사용 중인 김도겸(22) 씨는 “옛날에 모토로라 제품을 좋아했는데 갤럭시Z플립이 그 느낌과 비슷하고, 여태 나온 제품들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끌린다”며 “고민해볼 고 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갤럭시S10을 사용 중인 하모 씨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왔는데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도 떨어지지 않아서 바로 구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갤럭시폴드 사용자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김경일(20) 씨는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폴드는 무거웠는데 갤럭시Z플립은 작고 가벼워서 봄, 여름에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 힙지가 프리스탑이라 원하는 각도로 세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구매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김 모(67) 씨는 “광고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보러 왔는데 접히는 거 말고는 좋은 점을 모르겠다”면서도 “사고 싶은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이날 갤럭시Z폴드를 체험하고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발길도 많이 보였다. 매장 관계자는 “지금 예약하는 고객들은 빠르면 1주에서 2주 내에 받게 된다”며 “제품 공급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내일 이후 구매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는 갤럭시Z플립 출시 후 첫 일주일 동안 통신3사와 자급제 물량을 합쳐 대략 2만대 수준의 물량이 국내에 풀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갤럭시 폴드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국내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도 자급제 모델 판매를 시작했지만 조기에 소진됐고, 물량을 적게 배정받은 일부 판매점에서도 갤럭시Z플립이 판매 30분 만에 완판됐다. 해외 시장 반응도 좋다. 미국에서 갤럭시Z 플립 판매가 시작된 당일 오전 삼성전자 미국 웹사이트에서 자급제 모델이 품절됐고, 싱가포르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갤럭시Z 플립이 출시 1시간 만에 초도물량이 다 팔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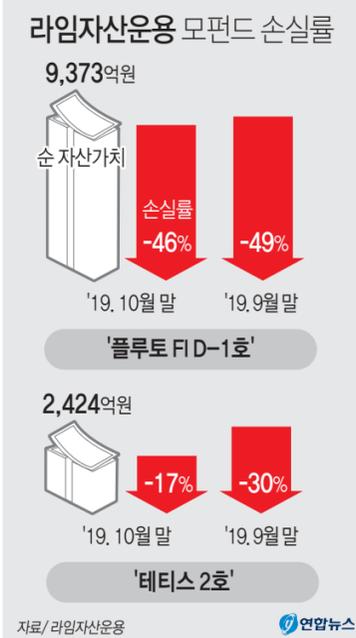
갤럭시Z플립 출고가는 165만원으로, 과거 폴더폰과 접는 방식이 유사한 클램셀(조개껍질) 형태의 폴더블 폰이다. 갤럭시Z 플립은 갤럭시S 시리즈처럼 대량 생산되는 스마트폰이 아닌 만큼 물량이 넉넉히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2兆 손실에도 금융당국 '나 몰라라'... 감독실패 책임론

원금손실 가능성 숨기고 판매 급급 금융위 "제도개선 탓 아냐" 선 그어 금융사들 내부통제 없이 위법행위 증권사 부실발생 알고도 고의 은폐

사모펀드에서 조 단위의 손실이 났지만 투자자들의 뭉일 뿐 책임지는 곳이 없다.

사모펀드 투자장벽을 낮춘 전문성도, 손실 감내 능력도 없는 투자자가 대거 유입됐지만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성장통으로 인식하는게 전부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수천 억원대, 연이어 운용사의 사기에 가까운 행각으로 1조원 안팎의 손실이 났지만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에 불과하다. 감사과정에서 불법·부실 운용이 드러났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이를 이유로 투자자들은 석 달이 지나야 사태를 알게됐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숨겨두고 상품 팔기만 급급했던 불안전판매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단골손님이다.



◆“확대해석 말라”... 일부 사모펀드만 문제?

16일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모(母)

펀드와 173개 자(子)펀드로 총 1조 6679억원 규모다. 개인계좌가 무려 4035개, 9943억원에 달한다.

개인들이 국내 메자닌은 물론 해외 약속어음(P-note)과 해외무역채권까지 자산도, 구조도 생소한 상품에 수익 원씩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5년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낮췄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바 있다. 사모펀드 설정액은 2015년 말 200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412조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헤지펀드 수도 지난해 1만1000개를 넘어섰다.

우후죽순으로 사모펀드가 팔렸고, 대규모 사고가 터졌지만 규제완화 탓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며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해 확대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필요 최소한”의 대책만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전히 사모펀드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이며, 자율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규제를 예전처럼 강화시키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안전판매와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한 만큼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적 허점 파고든 금융사... 감독도 실패

금융사들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피해를 키웠다.

운용사는 금융당국이 준 자율성을 악용했다. 유동화하기 힘든 자산에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고 인기몰이를 했고, 내부통제 없이 운용역의 위법행위는 반복됐다.

증권사는 운용사와 담보대출의 일종인 총수익스왑(TRS)과 계약을 맺고

수익을 얻으면서 피해규모를 늘렸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이 5억 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자 예·적금에만 돈을 넣어두려던 투자자까지 끌어들였다. 사모펀드는 판매수수료가 높다.

감독시스템도 투자자 편에서 건넜었다.

금융원은 지난해 8~10월 실시한 라임자산운용 감사에서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 중 하나에서는 운용사와 TRS 계약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다고 파악했다.

사기에 가까운 행각에도 금감원은 석 달간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와 운용사 입장에서는 가급적 손실규모가 늦게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알려줘야 하는게 맞지만 이해관계자인 판매사와 운용사, 실사회계법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TRS에 꼬여 배임 논란... 배상까지는 ‘먼 길’ 국민연금, LG전자 지분율 10%로 확대

》1면 ‘아무도 책임 안지는’서 계속

이에 따라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들은 고소인으로 모집하고 있고, 이달 중 대신증권과 라임을 고소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우리는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손실 위험을 고지하고 펀드에 대해 설명한 뒤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반포 WM센터는 일단 돈부터 받고 몇 달이 지나야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식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엮혀있는 TRS 이해관계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라임 펀드에 TRS를 제공한 증권사 3곳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임펀드의 정상분배금을 일반 고객보다 우선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를 어겨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법적책임을 물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TRS를 사용한 라임 ‘AI스타 펀드’의 경우 전액손실이 예상된다. TRS를 사용한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다.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한 상태다. AI프리미엄 펀드 역시 최대 78%의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이 불어날 것을 우려해 증권사에 TRS 회수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라임-판매사-증권사로 구성된 제3자 협의체 구성을 권유했으나 증권사 측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한금투, KB증권 등은 TRS를 제공한 증권사이자 판매사이기도 하다. TRS를 회수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꼴이고, 리스크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회수를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이해관



김정각 금융위원회 차관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TRS 투자 여부에 따른 자(子)펀드 손실률 규모》

모(母)펀드 편입여부	TRS 사용여부	예시	기준가격 하락 (20.02.17 기준)	NAV기준 (20.02.14 기준)	NAV 하락분	펀드 수
모(母)펀드 편입	사용 안함	Top2	-48% ~ -18%	2620억원	1092억원	39개
		플루토 1Y	-48% ~ -46%	1290억원	612억원	16개
		그외	-48% ~ -0.4%	1878억원	248억원	36개
모(母)펀드 편입	사용	AI스타	전액손실예상	472억원	492억원	3개
		AI프리미엄	-78% ~ -61%	197억원	135억원	2개
		그외	-97% ~ -7%	2445억원	1438억원	24개

계에 엮혀있다.

◆투자자 보상은 '까마득'

현재 2개 모펀드의 기준가 조정은 있었으나 총 6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는 여전히 실사 초기 단계다. 또 2개 모펀드에 딸려있는 173개의 자펀드의 기준가 조정도 필요한 상태다. 라임은 3월 말거나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상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플루토 FID-1'의 경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은 전체 22.9%에 불과하다. '테티스 2호'는 고작 9.5%다. 적어도 대부분의

자산 만기가 돌아오는 2023년은 돼야 정확한 손실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송 기간 역시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사 소송의 경우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판결이 나와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더욱이 사건 관련자 중 한명이 이 모라임 전 부사장은 잠적 상태로 수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일부 법무법인은 소송보다 분쟁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1년 이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다 분쟁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301@

》1면 '평균근속'서 계속

한편 임원을 제외한 직원 평균 연봉은 2018년 기준 남직원 8700만원, 여직원이 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 남직원이 6700만원, 여직원이 4990만원을 수령했다.

◆지분율 늘린 국민연금

LG전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총자산 27조8650억원, 매출액 23조3150억원을 기록했다.

LG그룹 67개 계열사 중 각각 21.51%, 23.71%를 차지하고 있다. GS그룹이 법적 분리된 2005년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LG그룹 67개 계열사 중 일등 자리를 지켜왔다. LG디스플레이(20.89%), LG화학(18.32%), LG유플러스(10.77%) 등이 총자산 부문에서 뒤

를 잇고 있다.

LG전자의 최대 주주는 33.67%를 보유한 LG그룹 지주사 ㈜LG다. 국민연금이 10%,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이 5.04%로 뒤를 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지난해 11월 퇴진한 조성진 전 LG전자 부회장이 1만6031주(0.01%)를 보유하며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의 LG전자 지분율은 2018년 말 9.09%로 10%를 밑돌았지만 그때보다 0.91%포인트 늘어났다. 보유 가치도 2018년 말 약 9650억원에서 1조 1700억원까지 증가했다.

LG전자 주가는 지난해 6월 8만원대였지만 지난 14일 기준 6만7000원이다. 메리츠증권증권은 LG전자의 적정 주가로 9만원을 제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직장서 밀려난 '비자발적 퇴직자' 49만명

추경호 의원실, 연도별 퇴직자 분석 전체 비자발적 퇴직자 2.8만명 줄어 40~50대 3.2만명 ↑ 5년 만에 최대

연도별 퇴직자는 매년 12월 조사기준으로 당해연도에 퇴직해 12월 조사시점까지 실직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통계청은 이직사유를 총 11개 문항으로 조사하는데 그 중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4개 항목을 고른 경우를 '비자발적 퇴직'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50대의 비자발적 퇴직자가 49만명에 육박하며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40대의 비자발적 퇴직은 직장의 휴·폐업,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사유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퇴직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가 48만9000명으로 지난 2014년(55만2000명) 이후 5년만에 최대치라고 밝혔다.

40~50대 비자발적 퇴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9만6000명)부터 2017년(40만6000명)까지 줄곧 감소했다가 2018년 45만7000명, 2019년 48만9000명으로 2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전체 비자발적 퇴직자는 2만 8000명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40대~50대는 3만2000명 증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코로나19’ 쇼크, 사스 넘었다... 유통·항공·호텔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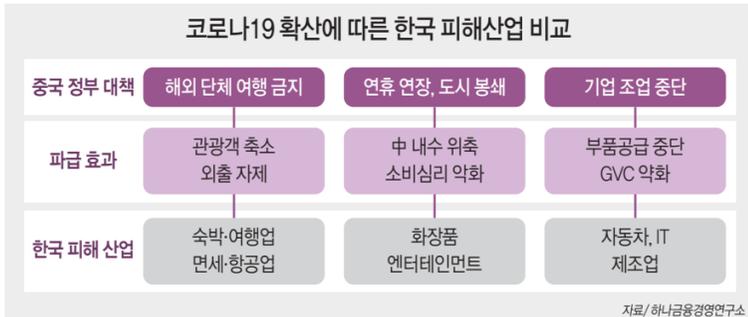
(SO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별 영향 보고서

중 경제위상 커지며 파급력 상승
韓 지리적 연결성 높아 피해 불가피
“수출 다변화 통해 위험 분산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커지며 한·중간 경제적·지리적 연결성이 커진 까닭이다.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은 관광객 축소와 외출자제, 중국 내수 위축 등으로 유통업·호텔업·항공업·화장품업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국기업의 조업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로 IT·자동차를 포함한 대



부분의 국내 제조업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제적·지리적 연계성 ↑...산업 전반 타격

연구소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력이 사스 때의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높은 경제·지리적 연결성으로 산업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관광객 축소와 외출자제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여행·숙박·면세·항공·화장품 산업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공장의 생산중

단 장기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자기기·운송장비·기계·화학 등 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영준 산업분석팀장은 “한국 수출과 입국 관광객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30%를 웃돈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은 관광객 축소, 중국 내수위축,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의 경로로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재 산업, 직접적 피해 불가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는 유통업이 지목됐다.

연구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임시 휴업 매장의 매출 손실, 해외 입출국객 감소와 중국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면세점 타격, 집합시설 기피로 인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영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김문태 수석연구원은 “점포당 매출액이 크고 해외 입출국객 변화에 민감한 면세점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최근 면세점 고성장이 외국인 매출 급증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항공업 역시 전체 국제선 노선 중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노선의 운항 중단 및 감편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감소 뿐만 아니라, 중국 노선이 외의 여행 자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 홍콩에 이어 중국 노선마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감편되면서 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항공업계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호텔업 역시 외국인 숙박객의 급감과 함께 호캄스 쪽으로 대표되는 내국인 숙박객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단체 활

동에 대한 거부감으로 각종 행사 및 모임이 취소되면서 부대시설 매출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제조업 전반으로 충격 확산될 전망

제조업 부문에서는 중국생산공장이 휴무에 들어가면서 부품수급 차질로 국내 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자동차 산업을 제외할 경우 직접적인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부품 및 소재 조달과 물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중국의 수입수요도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전자기기·기계·화학 등 주요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인혜영 연구위원은 “중국발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기업들은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15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한 객실 발코니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 일본에서 14일 하루에만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총 259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218명은 크루즈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코하마=AP/뉴스1

“감염병 경제손실, 전 세계 5700억弗 달해” (GDP 0.7%)

보험연구원 보고서 감염병 위험에 경제적 민감도 증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16일 발간한 ‘감염병 리스크 대비 보험상품 개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술 발전과 방역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발생 빈도와 감염병 위험에 대한 경제적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GPMB에 따르면 1918년 당시 세계 인구의 2.8%인 5000만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수준의 감염이 지금 발생한다면 8000만명이 사망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

가 간 이동 증가, 도시화, 사람과 동물 간 접촉 증가, 국가간 교역 증가 등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 빈도나 손실 비용은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염병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염, 치료, 격리, 사망에 따른 인적 손실과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및 글로벌 공급망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기후변화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해 70만명 이상이 감염병으로 사망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전 세계 GDP의 0.7%(5700억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사스(SARS)는 400억달러의 생산성 감소비용을, 2014~2016년 에볼라(Ebola)는 530억달러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는 450~550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MERS의 경제적 피해비용을 총 2조3010억 원으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내에 집중될 경우 관광수입이 9000억원, 수출이 최대 2조5000억원 감소, 국내소비가 0.1%포인트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은 “감염병 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손실규모가 크고,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통상 민간보험에서 담보를 꺼린다”며 “보험회사는 감염병 발생 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소비둔화와 기업의 수익감소, 그리고 그것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코로나로 국제유가 변동성 더 커질 것”

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중·세계 경제둔화, 석유수요에 영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6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석유수요 둔화 우려로 지난 1월 말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두바이 유가는 지난달 20일 배럴당 64.4달러에서 지난달 말 57.6달러로 하락했고, 지난 11일 기준 53.3달러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여행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 및 세계 경기 둔화 등이 글로벌 석유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투자은행(IB)은 올해 1분기 세계 석유수요 전망치를 일평균 115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65만배럴 하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확

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2002~2003년 사스 때와는 달리 중국의 석유소비 규모가 커진 데다 코로나19의 확산속도 등을 감안하면 향후 글로벌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더 둔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국제유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정도, 주요 산유국의 추가 감산 여부, 리비아내전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제조업 수익성이 더 악화돼 투자심리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매출 증가세가 악화한 데다 기업보유 자산의 평가 가치가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인건비·원자재 비용 상승도 이익 감소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중국 제조업은 전망도 밝지 않다. 한은은 “중국 공장가동 중단, 도시 봉쇄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업체의 경우 당분간 투자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한경연 “코로나19 장기화면 기업 매출 10% 감소”

1000대기업 ‘코로나19’ 영향 조사

재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장기화되면 10% 안팎의 매출액 감소도 예상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시장조사기관 모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기업 중 61.8%가 악영향을 전망했다. 매출액과 수출액 감소

예상 수준은 각각 3.3%와 5.1%로, 업종별로는 무선통신기기(8.4%)와 자동차(7.3%), 석유제품(6.0%)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피해 수준은 매출액이 8%, 수출액이 9.1%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13.9%)와 자동차부품(-12.8%)이 가장 타격이 컸고, 석유제품(-12.4%)과 일반기계(-11.0%), 섬유류(-10.8%)도 10% 이상 피해가 예상됐다. 중국에 대한 수출액도 평균 12.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중국 현지 출장을 자제한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지만, ‘별 다른 대응방법 없음’도 29.5%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현지 경영활동 축소도 6.7%로 적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지원 우선 순위로는 ‘국내외 전염상황 등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가 57%로 절반을 넘었고,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21.2%)’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 간 협력(9.5%)’ 등이 거론됐다.

/김재용 기자 juk@

우리銀, 캄보디아 내 자회사 합병

현지 서민금융시장 영업 강화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순익 14배↑
총대출금 총 70여개 경쟁사 중 최대
해외수익 비중 중장기적으로 확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WB파이낸스 본사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캄보디아 내 자회사간 합병을 통해 현지시장 공략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년간의 준비와 캄보디아 금융당국 인가를 거쳐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자회사인 WB파이낸스와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를 WB파이낸스로 합병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저축은행인 WB파이낸스와 소액여신금융사(MFI)인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의 합병을 통해 캄보디아 금융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4년 7월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인수를 시작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했다. 인수 5년만에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의 총대출금과 순이익은 각각 12배, 14배 증가했으며, 총

대출금 규모는 현지 70여개 경쟁사 가운데 최대다.

우리은행은 리테일 영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여수신 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 WB파이낸스를 2018년 6월 추가로 인수했다. 캄보디아 전역에 116개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WB파이낸스의 총자산은 인수 1년만에 60% 가까이 성장했다.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와 WB파이낸스의 성장에 힘입어 우

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당기순이익은 2017년 400만달러(USD)에서 지난해 1700만달러까지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합병으로 핀테크 및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의 금융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전용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캄보디아 현지 리테일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합병법인의 자산 및 수익은 캄보디아 저축은행 중 다섯 번째에 이른다”며 “WB파이낸스를 중장기적으로 상업은행으로 전환해 캄보디아에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전 그룹사는 신남방정책에 따라 핵심 성장지역인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 투자확대 및 체계적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해외수익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코로나19 관련 상담·금융지원 상황(2.7~2.12)〉

(단위: 건, 억원)

	상담	금융지원	정책금융		
			정책금융	은행권	카드*
신규대출·보증	건수	5,137	67	46	21
	금액	-	123.1	96	27.1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수	101	128	113	15
	(대출·보증 포함) 금액	-	600.3	483.3	117
금리·보증료 우대	건수	99	1	-	1
	금액	-	2.7	-	2.7
수출입금융	건수	-	7	7	-
	금액	-	6.5	6.5	-
기타	건수	755	398	-	4
	금액	-	66.6	-	35.5
합계	건수	6,092	601	166	41
	금액	-	799.2	585.8	182.3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금리·연체료 할인, 무이자할부 제공 등

/금융위원회

코로나피해 中企·자영업 금융업계 800억 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600억도
신규대출·보증 123억 뒤이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카드사)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8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난 7일 이후 12일까지 4영업일 간 피해 기업에 799억2000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가 600억3000만원(128건)규모로 가장 많았고, 신규대출·보증이 123억 1000만원(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금융위는 앞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

나19로 매출이 줄거나 중국기업과의 거래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이다.

피해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과 원금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봉쇄된 중국 내 지역 기업으로부터 자금이나 물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용장 만기 연장, 부도등록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자금 사정과 경기 미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대책에 따른 금융 지원(대출·보증)이 추후 부실화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조직화된 보험사기, 소액 공모도 위법

금감원 Q&A

Q.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연락해보니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거절했지만 매우 높은 시급을 약속하기에 잠깐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알바, 해도 되는 걸까요?

A. 고의로 자동차 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10·20대 배달원들에게 이러한 유혹이 많아졌다고 합

니다. 이런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시면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요즘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요 사기 유형과 관련 당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고 미용시술을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브로커들은 주로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도록 권유하는데,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 확인서는 요구하셔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주위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사고내용을 조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관 누수로 이웃에게 피해를 유발한 사람이 누수된 배수관의 세대표지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지인의 세대로 변경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탁을 받은 지인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해달라는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김희주 기자 hj89@

“대부업 이용전에 서민금융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연대보증은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전엔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등록된 곳에서 대출금리와 연체이자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게 요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다. 수수료나 공제금 등 명칭은 달라도 대부업체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 계산해야 한다. 기존 연 24%를 넘는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대출 계약을 맺을 때는 금리를 비롯해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받아

야 한다. 계약은 자금 필요기간에 맞추는 것이 좋다. 장기로 맺으면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 부담이다. 이용자가 줄 필요가 없다.

개인대출은 연대보증은 필요없다. 지난해 1월부터 연대보증 관행은 폐지됐다. 대부업체가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황을 요구하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상환유예나 채무감면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카드

빅데이터 활용 ‘V4’ 출시

삼성카드가 빅데이터를 통한 생활비 자동납부 혜택 및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혜택 강화로 업그레이드된 ‘숫자카드 V4’ 시리즈를 출시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1년 11월 숫자카드 시리즈를 처음 출시한데 이어 2014년 숫자카드 V2, 2018년 숫자카드 V3를 출시했고, 이후 2년만에 새로운 버전인 ‘숫자카드 V4’ 시리즈를 출시하게 됐다. 숫자카드는 현재까지 1400만매가 넘게 발급되며 삼성카드의 대표 신용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숫자카드 V4’는 최근 저성장과 경기둔화에 따른 고객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도시가스·통신비·4대보험 등 생활비 자동납부 시 합산 금액 10만원 당 100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또한 디지털·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최대 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관련 혜택을 강화했다. /홍민영 기자



이대훈 NH농협은행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3일 충남 공주시에서 소재한 화훼 농가를 방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농협銀, 화훼농가 소비촉진 한몫

코로나19 영향 어려움 겪는 농가 애로사항 청취, 지원방안 마련

NH농협은행은 지난 13일 이대훈 행장이 충남 공주시 사곡면 화훼농가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화훼농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성수기에 졸업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가격 폭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행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촉진과 각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농협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난달 말부터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 중이다. 최고 1.00% 이내(농업인 최대 1.70% 이내) 대출금리감면과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화훼농가 돕기 SNS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며, 봄을 맞아 축하하고 싶은 사연을 댓글로 응원하면 응모자 중 1004명에게 3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 행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농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루 빨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中 패널 생산 직격탄... 전세계 디스플레이시장 '요동'

코로나19 후폭풍

중공장 완전 정상화 아직 '역부족'
LCD패널 10% 이상 상승 전망
가동률 뚝 떨어지고 물류도 차질
도쿄올림픽 특수 기대감에 찬물

코로나19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산업계를 뒤흔들 조짐이다. 당장 디스플레이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생산 공장은 지난 10일 춘제 연휴를 끝낸 후에도 종전보다 10% 이상 가동률 저하를 겪고 있다.

노동력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감염자와 감염 의심에 따른 자가격리자가 10%에 가까운 상황에서, 현지 방역 조치 강화로 전력 가동이 어려운 탓이다.

격리 기간은 최소 2주다. 때문에 가동률을 끌어올리려면 최소 24일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얘기가. 현지 감염자가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8.5세대 OLED 공장 전경.

/LG디스플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더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완전 정상화까지는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 2월 한달간은 정상 조업이 불가능한 셈이다.

물류 문제도 있다. 우한 등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이 심화했다. 국내 산업계가 공장 중 적지 않

은 수를 중국이 아닌 베트남 등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지만, 배송 지연 가능성을 미리 공정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수요 하락도 걱정거리다. 코로나19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판매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월 초

판매량뿐 아니라 구매 문의도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2월 실적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TV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이 LCD 패널 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현지 최대 업체인 BOE의 경우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우한에 팜을 5개나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LCD 패널 가격이 10% 이상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상인 삼성전자도 지방 정부 방침에 따라 텐진 TV 공장 가동을 19일로 미룬 상태다. LCD TV 공급난과 함께 가격 상승이 유력한 이유다.

올레드 TV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는 현지 공장 가동률 저하를 말하면서도 올레드 라인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초 계획을

지키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올레드 TV 가격 인하 효과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단, LG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호재다. 여전히 LCD 패널 매출 비중이 70%를 넘기 때문이다. LCD 패널 가격 하락으로 올레드 비중을 높이고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도 이어졌다.

올레드 TV를 판매하는 LG전자도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올레드 TV 가격을 당장 내리지 못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LCD TV 가격 상승에 자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모든 산업계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MWC 등 국제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올 여름 도쿄 올림픽 개최에도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며 "모처럼의 특수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부실 조사, 배터리산업 ‘위축’ 초래”

>> 1면 'ESS 화재 진실공방'서 계속

이에 LG화학과 삼성SDI는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특히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되는 한 배경으로는 화재가 국내에서만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부재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LG화학은 국내에서 문제가 된 ‘납경산 배터리’가 해외에서 화재가 난 경우가 없고, 삼성SDI는 해외 화재 사례가 전무하다. 해외 화재 사례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같은 배터리임에도 국가별로 다른 환경과 운용 방식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2차 조사단을 주도했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LG화학과 삼성SDI 모두 해외 화재 사례가 없지 않냐는 질문에 “아니다. 두 기업 모두 있다”고 밝혔다. 이어 ESS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관계자는 “기업의 자료가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반면 LG화학과 삼성SDI는 전기안전공사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LG화학은 해외 화재 사례가 있지만 납경산이 아니라고 밝혔고, 삼성SDI는 해외 화재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파악하고 있는 LG화학의 사례가 납경산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고, 삼성SDI의 경우 분명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LG화학과 삼성SDI 등 제조사조차 파악하지 못한 해외 사례를 전기안전공사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전기 안전공사가 해외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이번 ESS화재 조사와 연관성이 있는 사례인지의 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ESS 화재' 2차 조사단은 해외 사례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배터리 화재'를 제조사의 원인으로 결론 지었다.

이번 2차 조사단에서 공동단장을 맡은 김재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LG화학의 해외 사례가 납경산인지는 확인 못했다”며 “삼성SDI의 해외 화재 사례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SDI의 해외 화재 사례가 진짜 있는지 여부는 모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다방면에서 검토되고 정확한 결론을 내렸어야 할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만한 대목이다. 끊이지 않는 화재와 함께 명확한 원인도 밝히지 못하며 국내 ESS시장은 현재 위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위해 시장의 성장에만 집중해, 설치 규정이나 관리 등 문제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6월 결론났던 민관합동 ESS 1차 조사단은 결과 발표와 함께 뒤늦게 여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박철완 서경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이상이나 유발된 진행성 불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다만 '유발된 진행성 불량'은 최초의 배터리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더 정밀한 표현”이라며 “최초의 셀을 생산해서 모듈을 만들 때, 모듈에 들어간 셀 자체는 제조 공정상 불량이 없었다는 얘기가. 사고 조사위도 배터리 이상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못 밝혔다”고 말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ESS충전율을 이번 가이드스에서 제한했다. 충전율을 못 쓰는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를 완벽하게 못 쓰는 부분이 생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의 문제로 결정하기엔 지금 어떤 것도 실험적으로 검증된 부분들이 없고 아마 검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한화시스템, 미래교통수단 ‘에어택시’ 만든다

美 오버에어와 공동개발 착수 개인항공기 사업영역 확대

한화시스템이 미국 개인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업체 오버에어사와 손잡고 미래도시 교통수단에 에어택시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4일(한국시간) 미국 LA소재의 PAV 선도기업 오버에어사 개소식에 참석해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공동개발에 본격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왼쪽 세번째부터), 오버에어 벤 티그너 CEO, 에이브 카렘 Chief Designer 등 30여 명이 참석해 오버에어사 출범을 축하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오버에어의 PAV인 ‘버터플라이’의 공동개발에 본격 합류한다. 그동안 한화시스템은 항공분야에서 항공전자 및 ICT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성능, 가격, 디자인, 고도화된 자동비행, 안전성을 두루 갖춘 PAV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미래 신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에어택시 시장 진출을 발



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왼쪽 세번째부터), 오버에어 벤 티그너 CEO, 오버에어 에이브 카렘 Chief Designer 등 관계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된 오버에어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표한 바 있다. 이후 PAV 전문기술 보유 기업 오버에어에 약 300억원을 투자해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1월에는 미국산업보안국의 특수유출허가 승인을 받았다.

오버에어는 세계적인 승차 공유서비스 기업 우버가 추진 중인 ‘우버 엘리베이트’의 핵심 파트너사 중 하나인 ‘카렘 에어크래프트’에서 분사된 기업이다. 카렘 에어크래프트는 수직이착륙기(VTOL) 전문업체로 ‘고효율’, ‘저소음’의 에어택시를 구현할 수 있는 다수의 특허 및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PAV 전담팀을 통해

오버에어와 협력체널을 구축하고, PAV 기체 공동개발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 협력관계 확대 등 전방위적인 사업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며 관련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PAV 시장 진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한화시스템이 PAV 시장 선점을 위한 공동개발에 한발 앞서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미래 항공전자 분야로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 LED마스크, 태국 국립병원서 효능·안전성 인정

LG프라엘이 의료 효과를 검증받았다.

16일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태국 국립 ‘시리랏병원’ 피부과 연구진과 함께 ‘가정용 LED 마스크 임상 효능 검증’을 완료했다. 시리랏병원은 태국을 대표하는 국립병원으로, 현지 선대 국왕이 사망 전 입원 치료를 받을만큼 위상이 높은 곳이다.

이번 시험은 30세부터 55세까지 참가



자 2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얼굴 반쪽에만 더마 LED 마스크(사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진들은 2주마다 제품을 사용한 쪽과 사용하지 않은 쪽을 관찰해 비교했다.

그 결과 프라엘을 사용한 부분은 사

용하지 않은 부분보다 피부 수분량이 최대 7.5%, 피부 탄력도 30% 높았다. 사용할 때나 이후에 피부가 붉게 변하는 등 부작용도 없었다.

LG전자는 이번 실험이 효능 검증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의료기관 임상 결과를 확보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LG전자는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에 프라엘을 연이어 출시한 바 있다. /김재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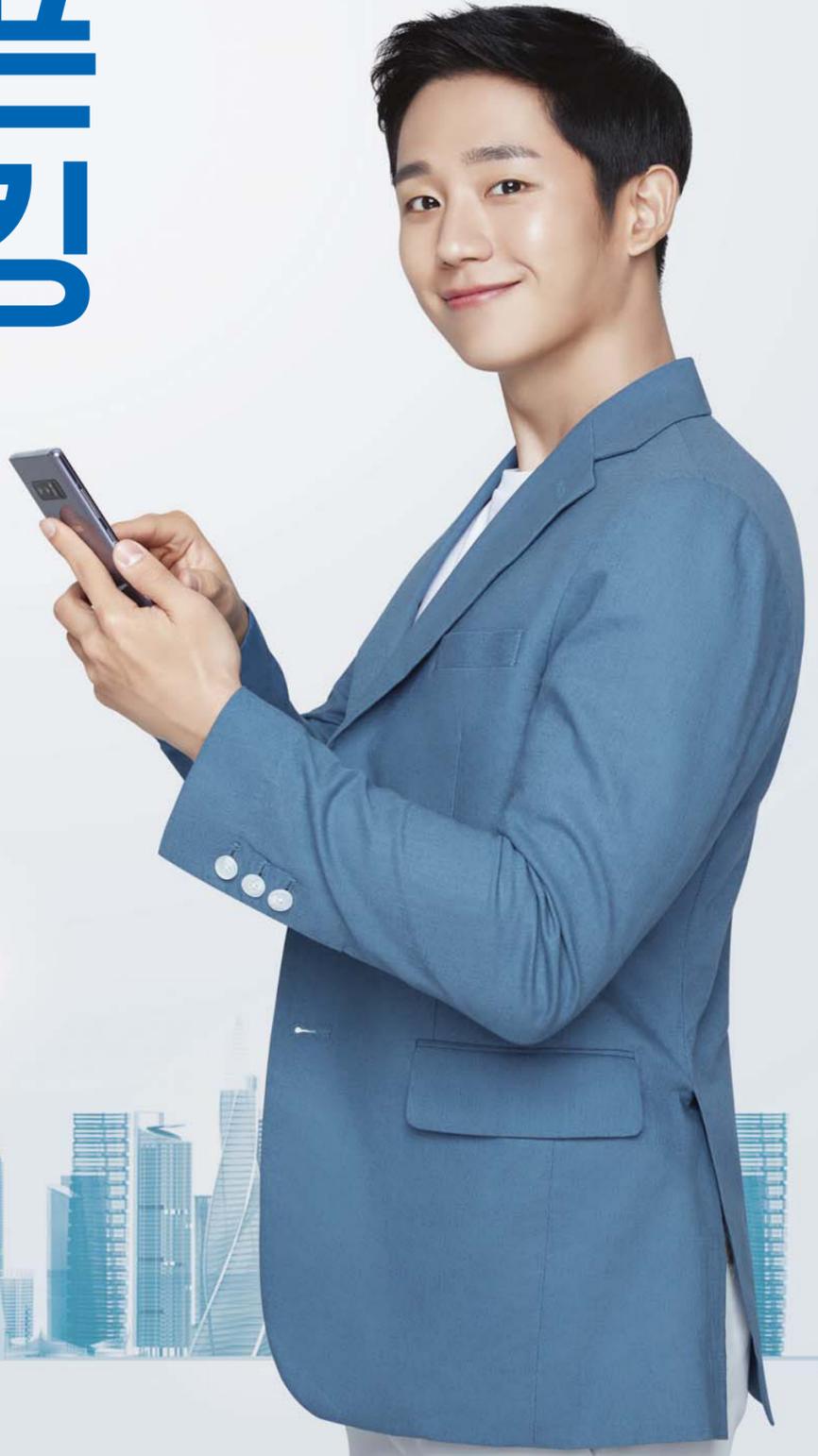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한번에 오픈 편하게 बैं킹

오픈뱅킹의 시작, NH농협은행에서

2000만이 선택한 NH농협은행 모바일 플랫폼-
NH농협은행 오픈뱅킹만 있으면 18개 주요은행
어떤 계좌든 조회, 이체 다 가능하니까!



즉시 이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원하는 계좌로 즉시 이체



자금 충전
다른 은행 계좌에서
NH농협은행 계좌로 충전 가능



모바일 ATM
ATM 출금잔액 부족 시
타 은행에서 충전 후 출금 가능



더+모임 서비스
모임 회비납부 시
타 은행 계좌에서 출금 가능
(11월 23일 이후 적용 / 올원뱅크에서 가능)



더치페이 서비스
더치페이 서비스 이용 시
타 은행 계좌로 출금 가능
(11월 23일 이후 적용 / 올원뱅크에서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201900002688 (2019.11.07. ~ 2021.11.30.) ※NH농협은행 디지털채널부 개발상품



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라이프 농업·농촌·농협에서 즐기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잉여현금흐름 40% 배당... 자사주 매입... R&D에 4조 투자

주주가치·미래기술 극대화... 모비스, 두 날개로 난다

현대모비스 정기이사회

3월 임기만료 정의선 대표 재선임
사외이사에 장영우 영앤코 대표추천
다음달 주총부터 전자투표제 도입

현대모비스가 올해 주주가치 극대화와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모비스는 1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이행 ▲전자투표제 도입 ▲미래 기업가치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항 중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안건은 다음달 1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된다.

현대모비스의 주주가치 극대화 방안은 4차산업 등 미래차시대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율주행·전동화 등 핵심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모비스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도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의섭 현대모비스 IR담당 상무는 "이사회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해 신속하고 책임있는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해 주주와 시장에 확고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시장 요구 반영

현대모비스는 주주권익 보호담당 사외이사 후보로 장영우 영앤코 대표를 최종 추천했다. 장영우 사외이사 후보는 메릴린치, 골드만삭스를 거쳐, UB S 서울지점 대표 등을 역임한 재무전문가다. 30여년에 가까운 관련 업계 경험과 폭 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사회에 전달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초 주주 추천 방식으로 사외이사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여러 명의 후보들이 개인과 기관들로부터 추천되었고, 독립된 외부자



현대모비스 CES 2020 내 전시부스.

문단 심사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장영우 대표를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선임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 사외이사를 2명이나 선임한 데 이어, 이번 주주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선진화된 경영시스템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현대모비스 이사회는 총 9명으로, 4명의 사내이사와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외이사는 각각 기술, 재무, 산업, 물류, 경영 등 글로벌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다. 새로 선임하는 장영우 후보 역시 재무전문가로서 주주가치 개선과 이에 필요한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의선 대표이사가 재선임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의 수석부회장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현대모비스의 미래차 핵심부문을 이끌어가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고 수준의 전략 및 사업 기획 전문가인 칼 토마스 노이먼 현 사외이사도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한다.

현대모비스는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주주들이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 등 소액주주에 주주총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중장기 주주가치 극대화 방안 적극 수행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올해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배당정책은 연간 창출 잉여현금흐름(FCF)의 20~40% 수준으로, 배당은 보통주 기준 연간 4000원을 유지한다.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분기 배당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도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통해 주주와의 신뢰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한 자사주 매입계획에 따라 3년간 총 1조원 규모인 매입금액의 1/3 수준을 올해에도 매입한다. 자사주 소각도 이어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걸쳐 각각 200만주와 25만 2000주를 소각했고, 올해 추가매입분 중 약 625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향후 3년간 투자재원 사용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미래기술 연구개발과 M&A 등에 3~4조 원, 생산능력 증대를 통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4조 원, 주주환원에 1조 원 규모를 각각 투입하고, 안전 및 위기대응을 위한 4조원의 현금보유 등이 골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 올레드TV, 美서 '가성비 1위' 선정

美 컨슈머리포트, 250개 제품 평가

LG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미국에서 2년 연속 가성비가 가장 좋은 대형 TV라는 평가를 받았다.

1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최고의 대형 할인 TV' 상위 5개 제품을 발표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총 25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TV를 선정했다.

1위는 LG전자의 65인치 올레드 TV(모델명 OLED65B9PUA)로 87점을 기록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지난해 5월에도 LG 올레드 TV(모델명 OLED65B8PUA)를 가성비 1위 대형 TV로 꼽은



LG전자의 올레드TV.

/LG전자

바 있다.

컨슈머리포트는 "이렇게 비싼 TV를 해당 목록에 올린 게 의아하겠지만, 최고의 성능을 갖춘 4K 올레드 TV를 찾는다면 그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미국법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올레드 TV 모델은 현지에서 1천 899.99달러(약 22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

LGU+, 코로나19 예방수칙 송출

'U+tv' 448만 이용자 대상 광고

LG유플러스는 자사 인터넷TV(IPTV)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수칙 광고를 무상으로 송출한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내달 중순까지 약 한 달 간 'U+tv'를 이용하는 448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코

로나19 예방수칙 광고를 선보인다. 이용자들은 주문형비디오(VOD) 시청 전 다운로드 시 나오는 광고 시간에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광고는 30초 정도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위생수칙부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와 같은 국민 행동수칙 등이 소개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日올림픽, 韓 재도약 기회로... 수출 지원”

코트라 日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프리미엄 소비재·ICT서비스 강화

KOTRA(코트라)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코트라는 지난 13일 일본 오사카에서 현지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코트라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도쿄올림픽 특수를 활용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진출을 다변화해 일본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의 수출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지역 무역관장이 모두 모인 회의에서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진출 분야 다변화를 통해 일본시장을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대(對)일본 수출은 2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9% 줄었지만 전체 수출실적(-10.3%)에 비해 감소폭이 적었다. 대일 투자유치는 서비스업 투자 증가로 전년 대비 9.9% 늘어난 14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최, 지속되는 경기부양책, 안정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는 긍정적 신호지만 소비세율 인상 여파와 올림픽 개최 후유증 등 변수도 존재한다는 게 코트라 측 설명이다.



코트라가 13일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 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왼쪽 다섯 번째)이 회의에 참석한 일본 지역 무역관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코트라는 ▲올림픽 특수와 수출 유망품목에 지원역량 집중 ▲신(新)수출방식과 신수출동력을 활용한 수출구조 개선 ▲경제체질 강화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일본 진출 전략을 도출했다.

우선 도쿄올림픽 특수를 겨냥해서는 프리미엄 소비재와 ICT 서비스의 일본 시장 진출을 강화한다. 한류 연계 소비재 수출상담회를 추진하고 5G, 사물인터넷(IoT) 등 진출 유망 ICT 분야의 협력 활성화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무역관별 핵심 산업과 연계한 신규 수요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수출 방식에 있어서도 클라우드펀딩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으로 온·오프라인 사업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수출동력을 만들어내

기 위해 의료·바이오 산업의 일본시장 진출도 강화한다. 또한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수요기업, 지자체 타깃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일본 벤처붐을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 대상 재무적 투자 유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코트라는 일본내 우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중이다. 향후에도 국내 대학의 일본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강화를 대 응할 계획이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한·일 관계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진출 분야를 다변화하겠다"며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양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강남 아파트 얼마나 떨어졌나 봤더니

잠실 주공5 1500~3000만원 ↓
대치동 은마 최대 7500만원 ↓
동작 아크로리버 4000만원 ↓

서울 아파트 매매가 0.03% 상승
주요 재건축 단지는 0.12% 하락
송파 주공5단지 최대 3억 떨어져
전세는 전반적 매물품귀 현상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주공5단지 아파트는 지난 1월 전용면적 76㎡가 3억원 떨어진 가격에 팔리는 등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2월 14일 기준)은 0.03% 상승했다. 재건축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주요 단지가 하향 조정되면서 0.12% 떨어졌다.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송파(-0.15%) ▲동작(-0.05%) ▲강남(-0.04%)은 떨어졌다. 송파는 잠실동 주공5단지과 레이크팰리스, 신천동 잠실파크리오가 1500만~3000만원 하락했다. 동작은 2018년 입주한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이 4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강남은 대치동 은마, 한보미도맨션1·2차 등 재건축 단지가 500만~7500만원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은 3.3㎡당 평균 매매가 5402만원, 전세가 2362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는 현재 전용면적 76㎡ 매매가 20억원, 82㎡가 21억원 등에 매물이 나왔다. 레이크팰리스는 전용면적 84㎡ 매매가 17억7000만원, 59㎡가 15억5000만원이다. 잠실엘스는 전용면적 85㎡의 매매가 19억9000만원이다.

거래도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 1월 거래량은 130건이다. 12월 400여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잠실 대표 재건축 아파트인 주공5 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76㎡가 18억8000여만원에 팔렸다. 12월 21억5000만원의 최고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개월 사이 3억원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매물은 있어도 현재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주공5단지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18건, 1월 1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대치동은 3.3㎡당 평균 매매



작년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다.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 /연합뉴스

가 6299만원, 전세 260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됐다.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84㎡가 22억5000만원, 76㎡가 20억원에 매물이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84㎡가 23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1월 22억원에 팔리는 등 1억5000만원이 떨어졌다. 강남구 아파트의 12월 거래량은 367건, 1월은 65건이 신고됐다. 그 중 은마아파트는 12월 6건, 1월 1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세의 경우 매물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0.15%) ▲강서(0.12%) ▲강북(0.10%) ▲성북(0.08%) ▲강남(0.07%) ▲강동

(0.07%) ▲마포(0.07%) ▲서초(0.07%) 순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잠실동 잠실엘스, 주공5단지,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오금동 올림픽파크센트레빌 등이 500만~20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는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역삼e편한세상, 개나리래미안과 논현동 아크로힐스논현이 500만~2500만원 올랐다.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봄 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면 서 직주근접,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850가구 모집

LH, 올 첫 공고... 자격 요건 완화
청년 24일, 신혼부부 17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85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63가구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올해부터 입주



자격이 개편돼 소득내역과 보유자산만을 기준으로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임대보증금최소금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으며,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유형(다세대주택 등) 2764가구, II 유형(아파트·오피스텔 등) 2923가구는 기존 공급 대상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까지 확대 공급한다.

I 유형은 II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II 유형은 I 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 유형은 오는 24일, 신혼부부 유형은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정연우 기자

신규고객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기회

NH투자증권 나무
내년 1월까지 이벤트 연장

NH투자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나무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최초 신규 고객 대상 국내주식 위탁수수료 평생무료(유관기관제비용 제외)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한다.

NH투자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라면 나무 앱에서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국내주식 위탁수수료 평생무료 혜택이 적용된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손엄지 기자



모바일증권 나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BS 증권사 6곳, 최대 6000억 메자닌투자 확대 결의

사모펀드시장 발전·투자자보호

프라임브로커업무(PBS)를 영위하고 있는 국내 6개 대형 증권사가 건전한 기업의 전환사채(CB) 등 메자닌 투자를 확대기로 자율 결의했다. 투자규모는 약 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로 발생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결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4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자기자본 규모순) 등 종합금융투자회사(중투자)로서 PBS를 수행하는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메자닌 자산의 유동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

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라임 사태’로 중소기업 CB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시장이 위축되고, 만기 도래에 따른 발행기업의 자금유동성 위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6개 중투사는 기업의 CB 등 메자닌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사모펀드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다.

각 사별 최대 1000억원, 업계 합산 6000억원 수준까지 투자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해당 예산은 메자닌 자산의 신규 또는 차환 물량 심사를 거쳐 시장가로 매입하는데 사용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메자닌 등 투자예

소정책과 중소기업 등 기업금융 투자활성화 정책에 일조할 것”이라며 “중투사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단으로 건전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활화와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중투사는 “향후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통한 건전선 규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수반되고, 발행어음에 대한 인가가 조속히 허용된다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인가순)이다.

/손엄지 기자 sonumij301@

대신증권 ‘히스토리 시스템’ MTS기술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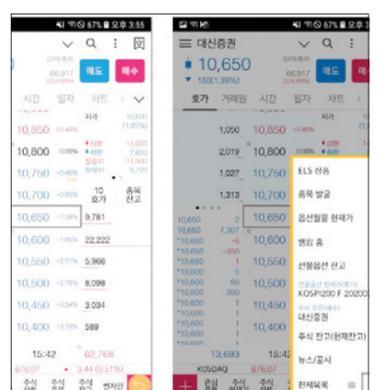
최대 20개 이전 사용화면 한눈에

대신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기능을 개선한 자체 기술 특허를 등록했다. 사용자가 선택했던 이전화면을 여러 단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한번에 접근할 수 있는 ‘멀티 히스토리 시스템’이다.

해당 특허 기술은 최대 20개의 이전 사용화면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빠른 검색과 이동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MTS의 경우 5단계 전의 사용화면으로 이동하려면 디바이스의 Back키를 5번 누르거나 해당화면의 메뉴를 찾아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대신증권 MTS ‘멀티 히스토리 시스템’ 기능을 이용하면 주문하기 전에 현재가, 차트, 잔고 등 다양한 화면을 수시로 이동하며 정보를 확인할



대신증권 ‘멀티 히스토리 시스템’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대신증권의 MTS인 사이보스터치와 크레온모바일을 통해 서비스 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신증권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손엄지 기자

배터리전쟁 조기종결될 듯 ITC, LG화학 손 들어줬다

〈美 국제무역위원회〉

LG화학·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 승인 '예비결정' 내리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 최종 결정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결국 조기패소로 결정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각)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ITC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조기패소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기패소판결에 따라 앞서 3월초로 예정된 변론 등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LG화학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악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훼손하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소송 분쟁

- ▲2019년 4월
 - LG화학, 美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 ▲5월
 - 美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조사 개시
 - LG화학, 경찰에 SK이노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 ▲6월
 - SK이노,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 ▲9월
 - SK이노, 美ITC-연방법원에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 LG화학-SK이노베이션 CEO 첫 회동 결렬
 - 경찰, SK이노 압수수색
 - LG화학, 美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맞소송
- ▲10월
 - 美ITC, SK이노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조사 착수
 - 美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SK이노 포렌식 명령
 - SK이노,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美ITC,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조사 착수
- ▲2020년 2월14일
 - 美ITC, LG화학의 SK이노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SK이노에 '조기패소' 판결
- ▲10월 5일까지
 - 美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예정

연립뉴스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은 LG화학의 요

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의견서에서 조기패소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전국 휘발유 가격 3주 연속 하락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주간 단위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0.7원 하락한 /당 1천 552.6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1월 재정일자리 효과 역대 최대

최대 증가 60대, 단순노무·임시근로

올해 1월 재정 일자리 효과가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래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 일자리 효과에 60세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가운데, 늘어난 취업자는 단순노무·임시직에 집중됐다.

보건복지서비스·공공행정산업 취업자를 제외한 민간 취업자 증가폭도 1월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지만, 이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재정 일자리 효과가 집중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하 보건복지 서

비스)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하 공공행정)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9000명 늘었다.

1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 증가폭을 보면 2014년 15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10만7000명, 2016년 6만6000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017년 11만1000명, 2018년 10만2000명, 2019년 16만명으로 확대한 뒤 올해 정점을 찍었다.

늘어난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는 60세 이상 단순노무 종사자와 임시근로자에 집중됐다.

1월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50만7000명으로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한용수 기자·연합뉴스 hys@



"경제야, 너도 점프해보렴"

눈이 내린 16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외국인 학생이 내리는 눈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취업 '똥똥'... 도소매·제조업중심 감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모든 연령 중 40대 감소폭 가장 커
도소매 4.8만명·제조업 4.4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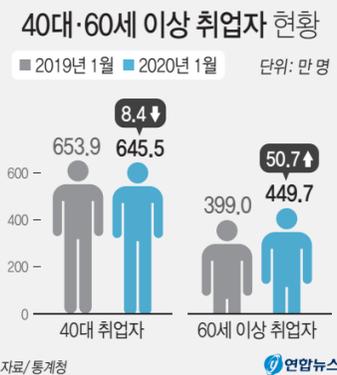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40~49세) 취업 시장이 도매·소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60대 일자리는 단순노무 종사자나 임시 근로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마이너스 40대

16일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40대 일자리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대 취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4만8000명, 제



조업에서 4만4000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6만8000명 증가하며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40대 취업자는 8만4000명 감소하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한 마이너스(-)를 나타낸 바 있다.

연령대별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로

비교해 보면 40대 일자리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40대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9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만3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6000명 각각 줄었다.

이러한 40대 자영업자 감소폭은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컸다. 50대는 6만3천명 감소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자영업자가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자영업자가 10만5천명 늘었다.

◆60세이상 일자리는 재정일자리로 늘어

60세 이상은 40대와 달리 최근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만7천명 늘어나면서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연합뉴스

공정위, 이해진 네이버 GIO 검찰에 고발

〈글로벌투자책임자〉

자료에 본인·친족등 소유 회사 누락
공정위 "계열사 대거누락 혼란 빚어"



자신 지분이 100%인 회사를 포함해 수십 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씨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라인(LINE Corp.)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씨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즈,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론,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역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의거해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도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제대로 공정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이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누락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민지 기자·연합뉴스 kmj@

제2회 베지노믹스페어

www.koreaveganfair.com


코리아
비건
페어 2020

2020. 9. 12(토) - 14(월)
서울 코엑스 C홀 / COEX HALL C, Seoul



코리아비건페어 주최 사무국
Tel. 02-761-2516 E-mail. info@koreaveganfair.com

“디지털 혁신의 지혜 ‘서문래 프로젝트’로 나눠요”

(서울 서쪽 문래동·GS샵 본사 위치)

인터뷰 | 김헌기 GS홈쇼핑 IT 매트릭스팀 매니저

서울의 서쪽, 문래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GS샵은 요즘 IT업계의 핫(hot)한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한창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서문래 프로젝트’가 있다. ‘서문래 프로젝트’는 GS샵이 IT 업계의 문화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부 임직원, 혹은 다른 회사와 네트워킹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IT직군 뿐 아니라 MD, PD, 마케팅팀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담을 나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김헌기 매니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문래 프로젝트가 생겨난 배경은?

4년전, 판교 등지에는 IT 기업들이 모여있어 신기술의 공유나 새로운 문화의 적용 사례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는 일이 많았다. 반면, 문래동을 비롯한 서울 서쪽은 이러한 활동들이 미비한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고 좋은 내용들, 트렌디한 기술들을 서쪽지역으로 공유하고 전파해 나가자는 의미로 서문래 프로젝트를 결성하게 됐다.

처음 시작은 우리 회사의 IT직군이 가진 역량 및 타 회사와의 IT 스터디 케이스(신기술, 업무방식)들을 전략정보부내 공유하는 자리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GS샵이 단순 TV홈쇼핑 방송 회사를 넘어 모바일, 미디어 커머스를 포괄하는 형태의 회사이다 보니,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 등을 알고자

서울 서쪽서 IT 문화 공유 의미로 ‘서문래 프로젝트’ 만들고 이끌어 내·외부 IT업계와 네트워킹 구축

아마존·에어비앤비 직원 등 초청 체득화 된 역량 비즈니스에 활용 유니콘 기업들과 네트워킹 추진

하는 임직원들이 많아 이제는 그것을 전사, 참석신청을 한 외부 인원에게 까지 오픈하는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

서문래 프로젝트는 단순히 교육을 듣는게 아니라 내부의 직원, 타 회사 혹은 외부의 IT 와의 네트워킹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다. GS샵이 IT의 업계의 문화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역시 프로젝트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큰 요인 중 하나이다.

-IT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하는 모임에서 최근에는 기업문화도 전파한다고 알고 있다. 최근 강연 내용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해 아마존 본사 IT 개발자를 초청해 강연·스터디를 진행한 적이 있다. 2주간 아마존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 공유했고, 이를 GS샵의 환경에 맞춰 적용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유익했다. 또, Air bnb의 직원이 당사에 방문, 일하는 방식 (데이터 의사결정 과정), ‘실리콘 벨리에서 하는 워라밸이란?’ 등을 설명하는 강연도 기억에 남는다.



김헌기 GS홈쇼핑 IT 매트릭스팀 매니저

/GS샵

-서문래 프로젝트의 규모가 초기와 달리 많이 커졌을 것 같다

초기에는 소수 인원들끼리의 공유의 장으로 활용했다면, 현재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주제나 내용에 따라 참여인원은 다르지만 보통 100~150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

사내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와 같은 경우 사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WORKPLACE(기업용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기도 했다. 특히 블록체인의 강의를 때는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MD, PD, IT, 경영지원직무군 뿐 아니라 전사적으로 직군을 불문하고 관심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심도와 호응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

GS샵의 경우 단순 TV를 매개로 하는 커머스의 영역을 지나 온라인, 모바일까지 변화하는 현 기술과 환경에 적응하며 운영되고 있는 회사다. 처음 업태의 태동으로부터 30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빠른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GS샵의 동료들 역시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와 신기술 등을 알려주고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에 목말라하고 있었고, 서문래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사내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쓰는 점은.

콘텐츠를 잡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내용들을 적절히 컨택하고 기획하는 것이 늘 큰 고민이다. 외부에서는 트렌디 한데 내부에서는 관심이 없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아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숙제다.

또, IT 직종에서는 기술이나 문화를 나누기 위한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젝트가 GS샵 공간에서 진행되다 보니 기업의 이미지 마케팅, 혹은 영리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 부분이 매우 조심스럽다. 순수한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 등의 공유와 경험의 전달 등이 가장 큰 목적이란 밝히고 싶다.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싶은지.

지난해에는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집중했다. 다양한 일하는 방법, 업무적 활용방안 등을 스터디하고 작게 빠르게 란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가지 IT적 방법론을 회사업무에 접목시켜 왔다.

올해는 지난해 체득화 된 역량을 바탕으로 실제로 비즈니스 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적용하고 구상해 나가는 역할을 해보고자 한다. 비즈니스를 기술기반으로 연결 할 수 있는 밋업 및 유니콘 기업들과의 선진사례 네트워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및 케이스 공유 및 스터디와 같은 기본적 부분들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맛·타격감·연무량 3박자에 자동예열 혁신 ‘화룡점정’

트렌드 Pick!

KT&G ‘릴 하이브리드 2.0’

기기 상·하단부 디자인 한층 세련 OLED디스플레이로 편의성 높여 ‘믹스 아이스 더블’ 시원한 맛 향상 크기 커 휴대성에선 다소 아쉬워

“맛” 빼고 다 바꿨다”

KT&G가 ‘릴 하이브리드’의 명성을 이을 신제품을 선보이며 디바이스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릴 하이브리드 2.0’이 바로 그것이다.

‘릴 하이브리드 2.0’은 권전형 전자담배 최초로 모든 버튼을 없앴다. 대신 스틱을 삽입하면 버튼을 누르는 과정 없이 자동으로 예열이 되는 ‘스마트 온’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KT&G가 자신감 있게 시장에 내놓은 릴 하이브리드 2.0을 체험해봤다. 크게 디자인, 편의성, 타격감, 연무량으로 제품을 평가했다.

디자인은 릴 하이브리드 1.0과 비슷하지만 기기 상단부와 하단부에 ‘다이아몬드 커팅’을 적용해 더 세련됐다. 전작과 나란히 놓고 본다면 확실히 더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 하이



(왼쪽부터) 배터리·카트리지가 잔량 표시가 되고, 스틱을 꽂았다가 바로 빼면 여러 표시가 뜬다. 또 가열 완료 10초 전에는 디스플레이에 남은 시간을 알려준다. 가열이 완료되면 흡입 가능 횟수를 표시해 준다.

/김민지 기자

브리드 캡드 전작과는 달리 본체와 같은 색상과 재질을 적용해 올드한 느낌을 덜어냈다. 릴 하이브리드 2.0의 색상은 매트 블랙·프리즈 화이트·코발트 블루·메탈릭 브론즈 총 4종으로 출시됐는데 개인적으로 블랙이 가장 세련됐다는 인상을 줬다.

편의성 개선은 릴 하이브리드 2.0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전작, 타사 제품 대비 사용자 편의를 대폭 향상했다. 이를 위해 릴 하이브리드

2.0은 기기 구동을 위한 버튼은 모두 없앴다. 다만 OLED 디스플레이 상단에 있는 버튼은 배터리·액상카트리지가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남겨뒀다.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남은 배터리와 액상카트리지가 양을 확인할 수 있다.

기기에 전용 스틱 ‘믹스’를 삽입하면 가열이 시작된다. 가열 완료 10초 전에는 디스플레이에 남은 시간을 알려준다. 가열 완료에 걸리는 시간은 40초가량으로 완료 후에는 진동과 함께 사용

가능 횟수를 표시해 준다.

릴 하이브리드 2.0이 기본적으로 최대 흡입 가능한 횟수는 일반 권전형 흡연자의 평균 흡입 횟수인 14회다. 잔여모금이 3모금 남으면 진동으로 이를 알려준다. 흡입하지 않고 가만히 둘 경우에는 3분 가량 지나면 진동이 울린 후 자동으로 전원이 꺼진다. 믹스를 중간에 빼면 디스플레이에 여러 표시가 뜨면서 기기 작동이 중단된다.

시연은 지난해 3월 출시된 ‘믹스 아이스 더블(부스트)’로 진행했다. ‘믹스 아이스’에 비해 시원한 맛을 더욱 강렬하게 구현했다. 깔끔하면서도 달콤한 열대과일 맛이 은은하게 가미돼 일반 멘톨 권연을 피는 사용자라면 이 제품이 가장 입맛에 맞을 듯하다.

타격감·연무량은 릴 하이브리드 시리즈 명성 그대로다. 시리즈가 업그레이드되며 맛·타격감·연무량이 더 떨어진다던 기존 사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데 릴 하이브리드 2.0은 이를 완벽히 유지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기의 크기가 휴대하기에는 다소 불편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릴 하이브리드 2.0은 권연을 사용하고 여기에 별도 액상카트리지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요소라 본다.

/김민지 기자 kmj@

지난해 편의점 실적 대형마트 앞질렀다

GS25, 영업의 ‘사상 최대’

1인가구·온라인 쇼핑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대형마트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편의점들이 대형마트보다 돈을 더 잘 번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는 지난해 2565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지난해 196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GS25와 CU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하며 3%대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 지난해 두 회사 모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67.4% 급감한 1507억원을 기록했다. 자회사를 제외한 이마트 별도 기준으로도 지난해 영업이익은 2511억원으로 GS25보다 낮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영업손실 248억원을 냈다. 롯데마트는 점포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원선 기자

“수능 40% 강제, 지방대에 타격… 대입 자율성 달라”

대학교 입학처장協

수능전형 확대 등 교육부 방안에 입학처장協 “공교육 위축” 반박 “대학환경 고려, 자율성 보장해야”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이 일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대학 입학처장들이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학들은 ‘수능 전형 확대’와 ‘학생부 비교과 축소·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부 방안이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대학들은 특히 교육부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전형 40% 이상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 대학들의 학생 모집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박태훈 국민대 입학처장, 이하 입학처장협의회)는 16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통해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의 실력이 아닌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학종을 축소하는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다. 학종 선발이 많은 서울 16개 대학에는 2023학년도까지 수능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을 압박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올해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기본 계획을 통해 대학의 수능 선발 비율 등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후보시절 교육공약으로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조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이 불거지자 13개 대학의 학종 전형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그에 따른 특정 감사와 종합감사 등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결과다. 일각에서는 ‘이

상적인 대입 제도’라며 교육부가 도입한 학종을 10여년 만에 다시 폐지에 대입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학생 선발 주체인 대학과 전문가의 견보다는 여론의 눈치에 따른 방안이란 지적도 나왔다.

우선 교육부와 대학들은 학종에 대한 시각부터 확연히 다르다. 교육부는 고교가 대학에 입시 목적으로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을 대학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고 등 특정 고교 출신을 우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대학들은 지원 학생의 학생부 내용을 맥락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의 학종 고교 블라인드 폐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도 고교프로파일이 특정 유형

고교에 유리하게 사용됐다는 정황을 확인했을 뿐, 프로파일을 활용해 고교별 가점 부여 등 실제 증거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고교정보와 고교프로파일은 특정 고교에 대해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 고교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라며 “기재금지사항 내용은 실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재금지사항 문제는 양식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교육부가 일부 대학의 학종 서류평가 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5%에 달한다면서 평가의 신뢰성에 의심을 드러내는데 대해 대학들은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 수 없는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근거로 부정확한 결과를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며 “교육부도 실태 조사 결과 시스템상 오류로 실제 서류평가 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맞받았다.

현 고1~중3 대입에 적용되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에 이어 현 중2부터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을 대입 반영을 폐지하고, 자기소개서 문항 글자 수 축소에 이은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학종의 사실상 폐지와 급격한 평가 자료 축소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학생부 특정 요소를 관리하려는 치열한 경쟁과 기록의 부풀림, 학교와 교사 간 기록 편차에 따

른 유불리 상황이 더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학교 내 자율활동이나 자치활동, 독서토론 교육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 선발 40% 이상을 권고한데 대해서는 대학의 입시정책 혼란과 수능 중심 개편에 따른 사교육 확대 등 교육 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1년 만에 다시 대입제도를 바꿈에 따른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과정 중심 등의 수업이 위축되고 교실 수업이 문제 풀이 위주로 돌아가 공교육 퇴행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국민 여론을 교육정책의 근거로 삼는 현재의 대입정책 패러다임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입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학종의 정성평가 원칙에 부합하도록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정 대학을 선택해 일부 전형 선발 비율을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이 처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대학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항공MRO단지 조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4단계 건설 기본계획에서 항공정비단지(MRO)를 추가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 인근에 약 164만m2(약50만평)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MRO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2023년 인천에 ‘항공기정비단지’ 조성

인천공항, 부지 164만㎡ 확보

항공기정비단지(MRO)를 조성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고, 정비단지 인근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활성화를 꾀하지는 못 직업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제4활주로 서북측 164만㎡에 항공기정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MRO는 정비(Maintenance)와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사업으로,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성능향상 지원을 위해 운항정비와 기체중정비, 엔진정비, 부품정비 등을 하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2023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공항 4단계 건설 기본계획에서 항공정비단지(MRO)를 추가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 인근에 약 164

만㎡(약50만평)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MRO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4단계 건설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에 MRO 단지가 신설되면 연1.3조원 규모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항공정비를 위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인천공항을 취항하는 많은 항공사들이 싱가포르와 중국 등 해외에서 항공기 정비를 위탁하는 실정이었다.

MRO 시장은 올해 820억달러(96조 원)에서 2029년 1160억달러(136조 원)로 연평균 3.5%씩 성장하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프랑스 드골공항, 중국 상하이공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 등 항공기 200대 이상을 보유한 국가의 관문·지방공항에는 항공정비 클래스 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와 한국만

/인천취재본부=김창근 기자 mirex@

인천시 ‘I-멀티모달 서비스’ 개발 추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대상 3년간 총 180억 투입, 역량 집중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대상에 뽑혀 통합 대중교통 서비스인 ‘I-멀티모달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지방정부·민간 기업·대학 등 아이디어로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따위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자로 선정돼 영종국제도시 대중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인천스마트시티·연세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I-MoD(Incheon-Mobility on Demand) 버스 서비스’를 개발해 효용성을 증명했다.

이 서비스는 버스, 전동킴보드 등을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자 대기·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성과를 인정받아 본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인천시는 I-MoD 버스 서비스를 확대한 통합 대중교통 서비스인 ‘I-멀티모달(Multi-Modal)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I-멀티모달 서비스는 I-MoD 버스

서비스보다 더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해 이용자 대기·이동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교통 취약지역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시는 3년간 국비 100억원과 참여기업 80억원을 받아 이 서비스를 개발을 추진해 버스·택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시민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운수사업자와 상생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對美 무역흑자 15% 늘었지만… 적자 대상국 한단계 하락

美 ‘상품·서비스 무역수지 보고서’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흑자가 15% 늘어났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대상국 순위에선 14위로 한단계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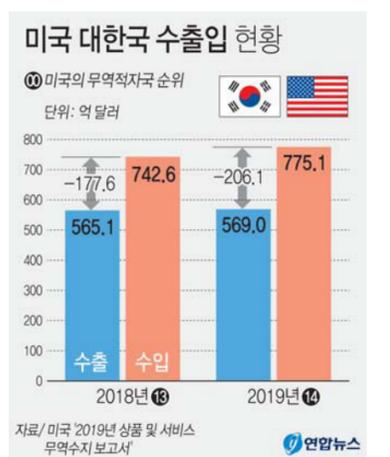
16일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6억달러(24조4000억 원)로 전년의 178억달러보다 28억달러 늘었다.

다만 미국의 무역적자 대상국에서 한국의 순위가 전년 13위에서 14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미국의 대한민국 상품 수출입을 보면 수출은 전년보다 0.7% 늘어난 569억달러, 수입은 4.4% 늘어난 775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가파른 폭으로 늘면서 무역수지(수출-수입)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미국의 대한민국 무역적자는 2017년 231억달러에서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 영향으로 큰 폭 줄었지만, 자동차 등 한국 주력제품의 대미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다시 확대됐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지역과 함께 성장”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

경기도·시흥시·서울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과 상호협력 등 MOU

뇌인지바이오특화센터 중심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 추진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로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시흥캠퍼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협력 사업 개발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과 지난 14일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시흥시 서해안로 405 일원 66만2009㎡에 총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로 20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 한라건설을 포함한 특수목적법인(SPC) 주관으로 41만1492㎡에 숙소·교육동·미래모빌리티센터 등 행정·연구 건물 조성이 올해 말 완료 예정이다. 2단계는 시흥시·서울대·시흥SNU홀딩스 주관으로 25만517㎡에 의료바이오 연구개발(R&D)센터와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이 건립된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뇌인지바이오특화센터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포함된 시흥 배곧지구



경기도와 시흥시, 서울대가 1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 조성 위한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세정 서울대 총장,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 /연합뉴스

(면적 0.88km)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오는 6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이 참석했다. 서울대는 그동안 시흥캠퍼스 설립을 위해 교육, 연구, 지역사회 공헌 등에 관해 경기도, 시흥시와 협의해 왔다. 이번 협약에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이 포함되면서 의료와 복지 등 협력의 범위와 분야가 한층 다각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과거 교육과 연구에 방점을 뒀던 것과 달리 현재의 대학은 보다 다채롭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협약을

통해 서울대의 역할을 되새기고 지역과의 상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걸음씩 전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올 한해에도 상호간 더 많은 교류와 논의, 협력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에 앞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본부 오현석 부분부장은 시흥캠퍼스의 향후 조성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대가 시흥캠퍼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밝혔다. 서울대는 시흥캠퍼스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세계최초 육해공 무인이동체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대규모 사이언스 파크와 글로벌 창업단지 조성 등도 추진 중이다. 서울대 등은 협약을 통해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와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 조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배상민 KAIST 교수, ‘iF 어워드’서 수상

오리온 ‘제주용암수’ 생수병 디자인



KAIST는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사진) 연구팀이 ‘제주용암수’ 생수병 디자인으로 세계 최고권위 디자인 대회인 2020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패키지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독일 하노버전시센터에서 주관하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대회 중 하나로, 60개국 7000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된다. 배 교수 연구팀은 생수병 디자인을 발표해 패키지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수상작 ‘제주용암수 디자인’은 ㈜오리온 제주 용암수와 KAIST와의 산학 협력으로 이루어진 프리미엄 미네랄 생수 디자인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배 교수팀이 디자인한 생수병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주상절리와 바다의 수평선을 형상화한 세로 선과 가로선을 활용해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나아가 이러한 병의 형태는 획기적으로 적은 양의 재료를 사용함에도, 일반적인 형태의 플라스틱병에 비해 약 4

배 정도의 고압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심미적 영역뿐 아니라 기능적 영역에서도 뛰어난 우수성을 보인다.

병 라벨에는 물을 통해 투과돼 보이는 신비로운 한라산과 밤하늘에 빛나는 오리온 별자리를 담아 제주 한라산의 낮과 밤을 감성적으로 그려냄과 동시에 ㈜오리온의 브랜드를 상징화했다.

배 교수는 “먼저 학생들과 산학 프로젝트로 연구한 결과물을 상품화해 대량생산되고 그 결과가 국제적 디자인 대회에서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제조 및 유통 공정상 디자인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구조 및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고안과 외형의 아름다움까지 표현하려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글 읽고 쓰기 못하던’ 만학도 893명 초·중 학력 인정

서울시교육청 문해교육 이수 인정
97% 장·노년층 ... 최고령자 91세

“나는 ‘공부하고 싶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달이면 졸업장을 받지만 이제 시작이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나는 공부할 것이다”(1942년생 안영순 씨)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글자를 읽고 쓰기 어려웠던 성인 893명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장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 학년도 초·중·고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893명에게 학력인정

서를 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글자를 읽고 쓰기 못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취득 기회와 생활문제 능력을 갖추도록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4710명이 졸업했고, 올해는 초등 660명, 중학 233명 등 총 893명이 학력인정서를 받는다.

졸업장을 받는 이수자는 91세 최고령 황현주(1930년생, 만91세) 씨를 포함해 60대 36%, 70~80대 54% 등 50~80대 장·노년층이 97%에 달한다. 황

씨는 고령임에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 우수학습자 교육감 표창장을 받는다.

아쉽게도 이들의 졸업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게 교육감 축하 인사가 담긴 카드와 축하 영상을 각 문해교육 기관에 배부해 축하를 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2881명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올해 초·중·고 75곳을 지정해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졸업이다’ 삼육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학위수여식 공식 행사를 취소하고, 13~14일 학과 사무실을 통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학위증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대학, 1080억 ‘지역혁신’ 머리 맞대

지역혁신 사업 권역별 간담회 진행
오늘 공주대서 첫 충청권 간담회

교육부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과 취업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가 17일부터 진행된다.

첫 간담회는 이날 충남 공주대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지역 협업기관장(기업 CEO, 상공회의소·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 원장 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후 대구·경북·강원 권역(2.20.), 부산·울산·경남 권역(2.24.), 광주·전북·전남·제주 권역(2.27.) 순으로 진행 예정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는 올해 1080억원의 국고가 지원

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고로 70%를 지원하고 지역이 30%를 대응 투자한다. 올해 3개 플랫폼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혁신 의견 등을 수렴해 사업의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간담회에 참석하는 충청권 4개 시도 소재 대학 총장들과 별도 자리를 마련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계획과 대학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특히 개강을 맞아 국내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2월 3주와 4주 사이 집중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들에 만일의 위급상황에 대비한 ‘지자체-대학-지역의료기관’ 직통 회선 구축 등 중국 경우 유학생 지원 방안 등도 논의한다. /한용수 기자

서울예술대 멀티미디어 융합퍼포먼스 ‘체인징 타이즈’ 성료

서울예술대학교는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t & Digital Tech’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멀티미디어 융합퍼포먼스 ‘체인징 타이즈’가 지난 14일 남산예술센터에서 성료됐다고 밝혔다.

서울예술대 예술창조센터가 주관한 이번 작품은 한국과 미국이란 서울 다른 시공간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지구를 위한 일종의 진혼곡이다. 또 죽은자의 넋을 기리며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윤희와 환생, 생명의 순환을 기원하는

‘생명 굿’이기도 하다. 텔레마틱 기술을 통해 서로 다른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으며 죽은 자의 영혼을 기리는 이번 작품은 죽음을 앞둔 자의 생명을 기원하는 산진오귀구 형태로 진행됐다.

체인징 타이즈는 2016년 1월 실시된 서울예술대 컬처허브와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고 예술가들의 몰입형 텔레마틱 콘서트를 기반으로 VR(가상현실), 5G 등을 활용해 더 혁신적인 텔레마틱 음악 공연을 선보이고자 기획됐다. /한용수 기자



서울예술대 멀티미디어 융합퍼포먼스 ‘체인징 타이즈’ 공연 모습. /서울예술대학교



제주 단독 별장 전경

화진포 단독지분 별장 매각!

※ 서울에서 2시간 40분 거리



- 1년 365일 사용가능
- 오션뷰 선착순 10명 매매
- 법인 사원휴양소 이용
- 1가구 2주택 불가
- 개별등기 가능
- 제주 별장 매매 별도

02-543-1177

(24시간 상담)



하나은행-경기·서울신보, 모바일 원스톱 보증부 대출개발 맞손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모바일 원스톱 보증부 대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가운데)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 한중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국 새마을금고에 코로나 예방물품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대구원대새마을금고를 찾아 코로나19를 대비한 예방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부터 금고를 내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임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유학생 104명에 장학금
 부영그룹이 설립한 재단법인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2020년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날 제 41차 이사회에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서 한국으로 유학,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38개 국가 총 104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약 4억15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에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부영그룹



우아한형제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50억 기금 조성
 (주)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1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이 기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 50%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부터), 제갈창교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MTS, 코로나 방역 소독제 중에 무료전달

12억 상당 긴급 구호품 지원
 MST는 "고통받는 이웃 국가 국민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운송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전액 무료로 전달했다"며 "중국측은 감사장등 여러가지 형태의 고마움을 전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MST는 앞서 '바이오크린액트'가 세계 각 나라들의 FDA에서 허가 받은 수많은 살균소독제 중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시험성적서를 취득한 바 있다. 100% 천연물소재들로만 제조됐다. /이세경 기자 selee@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Q. 상법은 타인 명의로 유효하게 주식을 인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자는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서의 납입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명의를 대여한 자와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진다. 실제 출자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인과 실제 출자자 중 누가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는가? 그리고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하는가?

A. 판례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는 주식인수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①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도 없고 이를 표시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출자자가 타인의 승

락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출자를 이행했다면,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인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인을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인과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인을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 출자자와 명의인 중 누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종래 실질설(실제 출자자)과 형식설(명의인)이 대립했다. 과거 판례는 명의인이 누구인가에 관계 없이 실제 출자자(실질주주)가 주주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실제 출자자(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의개서를 한 명의인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따라서 ①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한 경우,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가지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일 실제 출자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하지 않은 명의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명의인이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회사는 명의인을 주주로 인정하더라도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주주권이 귀속되는데, 주주명부에도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명의인은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출자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법무법인 바른

500ml 생수병 170개 채운 '헌혈왕'

삼성SDI 조현수 프로 누적 헌혈횟수 200회

삼성SDI에서 '명예대장'을 수여받은 헌혈왕이 나왔다.
 삼성SDI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조현수 프로가 최근 헌혈 200회를 기록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명예대장'을 수여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고교시절부터 헌혈을 해 온 조프로의 누적 헌혈 횟수는 212회다. 성인 남성의 1회 헌혈량이 400ml인 점을 감안하면 조프로의 헌혈량은 약 85l에 달한다. 이는 500ml 생수병 170개를 채울 만큼의 양이다.
 조 프로는 "헌혈은 건강한 사람만의 특권"이라며 "우연히 시작한 헌혈이었지만 제 피가 한 생명을 살리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 뭔가 짜릿한



조현수 삼성SDI 프로가 헌혈의 집에서 200번째 헌혈을 하고 있다. /삼성SDI

기분이 들었다. 그 이후 '가치 있는 생활습관을 하나 만들자'고 다짐했고 헌혈이 삶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혈을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도 같이 들이기로

결심했다"며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피를 나눠줄 수 없다. 헌혈을 앞두고는 술을 일절 마시지 않는다. 헌혈이 인생에 건강이란 선물을 주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일하는 팀 동료들도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인 안승호, 이부휘, 태충호 프로도 헌혈 100회를 달성해 '명예대장'을 수여 받았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혈액 부족 국가로 헌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증질환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수혈을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헌혈이 줄고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인사

-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공무원노사협력관 연원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 신병대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원전산업정책관 김대자 ◇국장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박재영 ◇과장급 전보 △무역정책과장 이귀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박진서 △세종연구소 파견 권혜진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김정훈 △저작권국장 김재현 ◇국장급 전보 및 교육훈련 파견 △대변인 한재혁 △국내훈련(국방대학교) 김일환 △국내훈련(국립외교원) 이수명 △국내훈련(국립외교원) 윤성천 △국내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홍호성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이정미 △운영지원과장

- 이용신 △뉴미디어소통과장 박미경 △문화산업정책과장 이혜돈 △국체체육과장 이승훈 △융합관광산업과장 김선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장 최정현 △한국정책방송원 기획편성부장 이관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과장 이진숙
- 부음**
- ▲목영호씨 별세, 목혜숙·목혜정·목혜경·목혜영·목준균(전 매일유업 고객지원본부장·전 SBS S 부국장)·목혜진씨 부친상, 최원미(샐러드마스터 올리브시장을)씨 시부상, 이준혁(싱가포르 거주)씨 장인상 = 16일 오전 6시1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장지 천주교영인공원묘원, 02-2227-7556
 - ▲김정자씨 별세, 권진혁(화성산업 상무)·권광

- 혁씨 모친상, 서정화·석정기씨 장모상 = 15일 오전 2시40분, 대구전문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53-965-7301
- ▲이연례씨 별세, 오기택씨 부인상, 오경희·오진희(더클래식피아노원장)·오성희(플러긴스 디자인대표)·오동건(밴쿠버 패밀리레스토랑 대표)·오승희씨 모친상, 최준관(플러긴스디자인 대표)·이경준(현대해상 서귀포지점 근무)·배재만(연합뉴스 사진부장)씨 장모상 = 16일 오전 11시,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성당, 발인 18일 오전 8시30분, 064-762-3444
- ▲나승권씨 별세, 나금·나경의·나해인·나은경·나경지·나금주씨 부친상, 안경재·이도겸·이재운·류광욱(한스경제 신문제작본부 차장)씨 장인상 = 16일 오전 8시30분,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30분, 02-2631-4422

유통업 체질 바꾼 '온라인 붐'... 점포, 배송기지 탈바꿈

홈플러스 '올라인' 강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매출상승 신규고객 매일 2000명 이상 유입 배송차량 15% 확대, 점포인력 투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스크나 위생용품 외에 핵심 생필품도 동네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를 찾는 대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1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온라인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설 대목이 끼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27%나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온라인 매출에서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53%에서 56%로 늘고, 한 번도 홈플러스 온라인몰을 이용한 적 없는 신규 고객이 매일 2000명 이상 유입됐다.

기존 온라인에서 대부분 잡화는 구매할 수 있지만 신선식품을 비롯한 먹거리 구매는 한계가 있어 대형마트 온라인몰로 고객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 폭리 적발 증가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홈플러스

로 안정적인 가격과 물량을 갖춘 유통 채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핵심 생필품 공급처인 대형마트 업체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사업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필품 수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올라인' 사업을 강화하면서 전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몰 배송기지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의 넉넉한

물량을 온라인몰 재고로도 활용함으로써, 고객이 집 인근 마트로부터 생필품을 가장 신선하고 빠르게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매장 전단과 상품 매대 연출물에도 지금 눈에 보이는 상품 그대로 당일배송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걸고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쇼핑을 위한 '쇼룸'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배송 안정성과 편의성도 높였다. 홈플러스는 이번 주부터 한시적으로 배송 차량을 기존 대비 15% 늘리고, 점포 인력 일부를 온라인 피킹 작업 지원에 투

입해 원활한 배송 수행에 나선다.

또한 창고형스페셜매장의 온라인몰 '홈플러스 더클럽' 무료배송 구매금액 기준을 기존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40% 하향 조정해 자영업자들의 구매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최근 오픈마켓 위생용품 폭리 사례를 감안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집중 투자한다.

우선 비대면 소비와 '집밥' 수요 증가에 따라 주요 신선식품과 먹거리를 저렴하게 내놓는다. 26일까지 한우, 제철 과일, 채소, 시리얼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라면, 즉석밥 등 간편식 데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온라인몰 첫 주문 고객에게는 생수(6입), 봉지라면, 계란(10입)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주중에는 그날그날 매장에서 갓 만든 신선한 반찬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도 대형마트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전국민 건강 UP 프로젝트' 기획전을 통해서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다양한 건강보양식, 가습기, 공기청정기, 홈트레이닝 용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

세제, 위생용품도 최대 50% 싸게 팔

고, 품귀현상을 빚었던 마스크는 매주 최소 10만 장 이상 물량을 마련해 안정적인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26일 이후에도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행사를 지속 유지해 온라인 고객 혜택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처럼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시민 생필품 및 방역물품 공급 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로 '주말'(의무휴업일)이나 '새벽' 배송은 원천적으로 차단당해 일부 유통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업체가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지어 규제를 피해 배송을 실시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물리적 한계가 있다. 때문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자면 유통산업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송승선 홈플러스 모바일사업부장은 "고객의 안전한 장바구니를 지원코자 온라인몰 혜택과 서비스를 강화했다"며 "영업규제와 소비위축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안정적인 생필품 공급과 고객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마트, 먹는 화장품 '이너뷰티' 시장 공략

울 건강분말·환 등 220% 신장 물광 콜라겐 젤리 등 2종 출시

'먹는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이너뷰티 시장의 성장세가 매섭다.

이너뷰티 (Inner beauty)란 내부에서부터 건강한 피부를 가꾼다는 뜻으로 식품에서는 먹는 화장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이너뷰티 시장의 규모는 2011년 500억에서 2019년 5000억원을 돌파하며 10배 이상 성장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집에서 피부를 케어하고자 하는 홈 뷰티족이 증가한 것이 주 이유다. 실제로 롯데마트의 관련 상품군의 매출을 살펴보니 건강 분말, 환 등 이너뷰티 상품군은 2019년 한 해 동안 220% 이상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홈 뷰티족을 겨냥해



/롯데쇼핑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인 제이준코스메틱과 손잡고 '물광 콜라겐 젤리', '더블 물광 케어 세트' 2종을 17일 출시, 이너뷰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물광 콜라겐 젤리'는 스틱 젤리 1포(20g)당 저분자피쉬콜라겐 2000mg과 블러드 오렌지 농축액 1800mg를 함유하고 있어 상큼한 맛이 특징이며, 스틱 형태로 휴대도 간편하다. 콜라겐 젤리

스틱 14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9900원이다.

이너뷰티 상품의 주원료인 '콜라겐'은 뼈와 피부 등에 꼭 필요한 단백질로 유로모니터가 선정한 2018년 가장 주목 받는 상품이다. 스틱 젤리에 함유된 블러드 오렌지도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뷰티 업계에서 각광받는 원료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 최대 온라인 행사인 광군제에서 1초에 3장씩 판매된 제이준코스메틱의 대표 상품, 블랙 마스크 5입과 젤리 14포가 포함된 먹고 바르는 '더블 물광 케어 세트'는 1만4900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 황은비 MD (상품기획자)는 "이너뷰티 시장은 더욱 확대 예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카테고리"라며, "피부관리에 관심이 높은 20~50대 여성 소비자를 타겟,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아트슈머 위한 소반展

롯데백화점이 오는 3월 2일까지 본점 8층 '이도 아트리에' 매장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상(床)인 '소반'을 모던하게 재해석해 선보이는 '소반, 다시 만나다' 전시를 연다. 소반은 식기를 받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작은 상을 말한다. 고객이 소반상품을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오는 3월 2일까지 본점 8층 '이도 아트리에' 매장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상(床)인 '소반'을 모던하게 재해석해 선보이는 '소반, 다시 만나다' 전시를 연다. 소반은 식기를 받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작은 상을 말한다. 고객이 소반상품을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콩조림·더덕무침 등 반찬 16종 론칭

이마트 트레이더스, '반찬존' 오픈

'집밥족'의 고민거리인 상차림 준비 간소화에 트레이더스가 나선다.

이마트는 트레이더스가 18개 전점의 즉석조리식품 코너에 '반찬존'을 오는 26일까지 순차적으로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나물·콩조림 등 간단한 반찬에 더해, 더덕무침·명이나물절임·매실무침 등 재료 손질과 양념이 어려운 반찬, 닭근위마늘볶음 등 안주 겸 밥반찬류까지 16개의 다양한 반찬을 선보인다.

트레이더스 반찬은 100g당 980~2180원, 한팩에 5000~7000원 가량으로 저렴하다. 모든 반찬을 대량으로 직매입함으로써 유통 과정을 축소해 합리적인 가격에 반찬을 판매한다.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맛있는 반찬을 선보이고자 노력했다.

반찬 전문 제조공장으로 부터 매일 반찬을 배송 받을 뿐 아니라, 단일 협력사에서 모든 반찬을 매입하는 것 대신



트레이더스 반찬 /이마트

다수의 협력사로부터 경쟁력 있는 반찬을 선별해 개별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트레이더스는 신규 반찬 투입시 시장 트렌드에 맞는 반찬 메뉴를 선정하고 자체 컨벤션을 열어 반찬별 제조사를 선정하고 있다. 바이어들은 컨벤션에서 반찬을 직접 먹어보고 평가하며, 이 과정을 통해 가장 맛있는 반찬을 골라 선보인다.

또한 트레이더스는 매주 반찬 판매 동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상품을 교체함으로써, 신선하고 다양한 구색의 반찬 라인업을 유지한다. /신원선 기자

'홈카페' 열풍... 신세계백, 커피·차 매출 14% ↑

'홈카페' 인구가 늘고 있다. 홈카페는 '홈(home)'과 '카페(cafe)'의 합성어로 집에서 나만의 커피나 차를 즐기는 것을 뜻한다. '홈카페 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마실 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커피·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최근 미세먼지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여러 대외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집에서 즐길 콘텐츠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이유다.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home training)', 레스토랑처럼 요리하는 '홈쿠킹(home cooking)'에 이어 홈카페까지 나홀로 즐기는 콘텐츠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신세계가 단독으로 선보이는 영국왕실 차 브랜드 '포트넘앤메이슨'의 매출은 지난해 52.6%까지 신장했다.

작년 한 해 동안 2억원 가까이 팔린 포트넘앤메이슨의 대표 제품 '로얄블렌드'는 1902년 에드워드 7세 왕을 위해



모델들이 포트넘앤메이슨 제품을 알리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만든 차다. 아쌈과 실론으로 구성했으며 가격은 톤 125g에 2만3000원, 티백 1만7000원이다. /신원선 기자

코로나를 대하는 韓-中 패션계 정반대 태도

서울위크 강행 vs 상하이 취소... “어쩌면 기회”

文 “경제회복 흐름 되살리는 노력”
국내 정부주도행사 차질없이 진행

상하이위크 상황 따라 중단 가능성
뉴욕위크, 코로나여파 흥행 반토막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중국 패션 컬렉션이 줄줄이 취소하며 혼란을 겪는 가운데, 상반기 정부주도의 국내 대형 패션행사들은 개최 강행 조짐을 보인다.

◆정부주도 국내 대형 패션행사 개최 강행

서울패션위크가 일정 변경 없이 행사를 강행한다. 서울패션위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패션행사다. 오는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기존 일정대로 진행한다. 오는 3월 25일 개최를 앞둔 2020 FW 패션코드 역시 개최된다.

정부주도 국내 대형 패션행사들의 개최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삼성전자 등 6개 대기업 최고경영진과 가진 코로나 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정부와 경제계가



2020 서울 패션 위크

함심해 코로나 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부주도 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최대 섬유교역전인 2020 프리뷰인대구가 3월 4일 개최를 앞두고 지난 10일 행사 취소를 공식 발표하면서, 3월에 예정된 국내 대형 섬유 패션 국제행사들 연이은 취소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결정된 정부 방침에 따라 관련 행사들이 일제히 행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패션계 큰손 중국은 줄줄이 취소

국내 대형 패션 행사가 강행될 조짐을 보이는 반면, 중국 현지 패션위크 및 기업 패션쇼 등 각종 섬유패션 행사들이 공식 취소를 통보하고 있다.

3월 26일(현지시간)에 열릴 예정이었던 2020 FW 상하이 패션 위크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공식 연기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코로나 19 피해 상황에 따라 아예 중단될 가능성도 크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중국시장을 타킷으로 하는 패션브랜드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온타임쇼’ ‘메이드상하이’ ‘쇼룸 상하이’ 등 상하이 패션위크와 함

께 개최하는 프레젠테이션 행사 및 브랜드 참여 행사들이 함께 연기될 조짐을 보인다.

상하이 패션위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패션업계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월 6일 뉴욕 패션위크를 시작으로 런던, 밀라노, 파리 순으로 3월 3일까지 이어지는 4대 도시 패션위크도 이번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았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뉴욕 패션위크도 중국 VIP 고객 불참과 아카데미 시상식과 날짜가 겹치면서 흥행이 반 토막이 나며 역대 최악의 뉴욕 패션위크로 기록됐다.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컬렉션 디자이너들이 해외 패션위크 참가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밀라노 패션위크의 경우 디자이너 안젤라 체, 리코스트루, 후이 등 비록 중국 바이어와 언론인, 스타일리스트 등 1000여 명이 행사 취소 통보했다. 각국 패션산업 관계자들은 디지털 중계로 중국 시장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지만 얼어붙은 중국 바이어들의 마음을 녹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자본 없는 패션위크... ‘기회 vs 위기’

상반기 정부주도의 국내 대형 패션 행사에 대한 패션업계의 평가가 다양하다. 먼저 코로나 19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다. 서울패션위크는 기존 시민참여형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서울컬렉션과 GN컬렉션, GN쇼 등 패션쇼와 전시회에 전문 행사로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패션코드 측도 “FW 시즌에 맞춰 비즈니스 행사에 집중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강행할 경우 전문행사도 진행되더라도, 16일 29번째 국내 확진자가 나온 상황임으로 소극적인 바이어의 참여 및 국민 불안감 증폭 등 패션 산업 활성화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흥행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전 세계 패션 시장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강행하는 행사들이 국내 잔치로 끝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컬렉션과 패션코드 모두 중국 바이어의 영향력이 큰 행사이므로, 행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업체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체험·전시 아우르는 스토어 ‘을지다락’

코오롱FnC 전개 5개 브랜드 한눈에
20년 된 기존 건물원형 그대로 유지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서울 을지로에 멀티 플래그십 스토어 ‘을지다락’을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을지다락은 코오롱스포츠, 커스텀멜로우, 시리즈, 에피그램, 레코드 등 코오롱FnC가 전개하는 5개 브랜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멀티 플래그십 스토어’를 표방한다. 단순한 상품 판매만이 아닌, 카페와 전시, 체험 등을 함께 아우르며 고객이 오감으로 브랜드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을지다락은 을지로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최근 을지로는 60~70년대 서울의 모습을 간직하는 동시에 뉴트로풍 카페와 레스토랑이



코오롱FnC 을지다락 외관 이미지

속속 생겨나면서 ‘힙지로’라 불릴 만큼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받고 있는 장소. 이처럼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골목에서 을지다락은 신규-기존 고객 모두를 이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을지다락 건물 역시 20여년 된 기존 건물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간판도 주변 분위기에 맞게 무채색으로 디자인하여 상권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조효정 기자

LF, ‘어라운드더코너’ 유통망 확대 본격화

총 5개 매장 추가 오픈

생활문화기업 LF의 스트리트 편집숍 브랜드 ‘어라운드더코너(around the corner)’가 지난 1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

어라운드더코너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젊은 ‘몰링족’을 겨냥해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6번째 매장을 열며 오프라인 유통망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 플래그십스토어, 타임스퀘어점, 인천점, AK홍대점에 이

어 지난해 12월에는 동성로점을 오픈하며 지방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했으며, 올해 말까지 AK수원점, 스타필드 안성점, 인천구월점 등 총 5개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해 오프라인 영향력을 높이는 계획이다.

어라운드더코너 롯데월드몰점은 총 330㎡(100평)의 대형 규모로 구성되어 최신 유행하는 의류, 액세서리, 신발, 기타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램시마SC 유럽학회서 톱10 하이라이트 선정

셀트리온

2020 유럽 크론병·대장암학회 발표
궤양성대장염 환자 임상데이터 공개

셀트리온이 지난 14일(현지시간) ‘2020 유럽 크론병 및 대장암학회(ECCO)’에서 발표한 램시마SC의 염증성 장질환(IBD) 적응증 임상 결과가 ‘톱 10 하이라이트(Highlight of ECCO)’에 선정됐다고 16일(한국시간)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제 15회 ECCO 학회는 전문 의료진을 비롯해 화이자, 애브비, 바이오젠, 다케다 등 세계 유수의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다.

ECCO 측에 제출한 램시마SC 임상 결과는 데이터의 정확도 및 우수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 가운데 올해 하이라이트 발표로 선정됐다.

셀트리온은 구술 발표에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 131명을 대상으로



숨론 벤 호린 교수 구술 발표 장면

/셀트리온

1년간 유효성 및 약동학, 안전성 등을 측정한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다.

임상은 6주차부터 54주차까지 SC를 계속 투여 받은 환자군과 IV 투여에서 30주차에 SC로 교체 투여 받은 환자군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두 집단 모두 혈청 약물 농도와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치료 초기에 IV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후 약물 효과를 유지하며 병원 방문없이 환자 스스로

투여를 가능하게 하는 ‘듀얼 포물레이션’ 전략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이날 발표에 나선 숨론 벤 호린스라 엘 텔아비브 대학 세바 메디컬센터 교수는 “IBD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54주 간의 임상에서 램시마SC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IV에서 램시마SC로 교체 투여해도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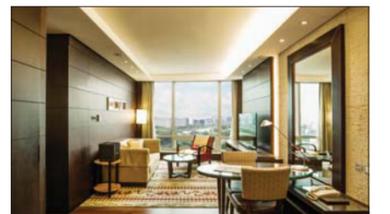
여의도메리어트 기생충 오스카 수상기념 패키지

여의도파크센터, 서울-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이하 ‘여의도메리어트’)는 한국 영화 최초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축하하기 위하여 ‘집 밖은 위험해’ 패키지를 3월 31일까지 선보인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Home awayhome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한 곳)’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에서 영화 ‘기생충’의 편의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패키지에는 키친 설비 및 주방 도구, 냉장과 냉동이 모두 가능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욕조 등이 갖춰진 스위트



집밖은위험해 패키지

객실에 머물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한가득 담겨있다.

/조효정 기자

현대車, 물류 수송용 '수소전기트럭' 상용화

2023년 광양항~부산 320km 구간 운행

현대자동차가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손잡고 물류 운송용 수소전기트럭 상용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14일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과 길인환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여수광양항만공사 수소전기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측은 물류 운송용 수소전기트럭의 개발·실증, 수소충전소 설치 등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정착 및 광양항 수소경제 활성화를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왼쪽)과 길인환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이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는 등 수소연료전지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내에 수소 충

전소 구축 부지를 제공하는 등 시범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물류 운송용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해 2023년까지 2대를 우선 도입하고 이듬해 10대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전기트럭은 광양항에서부터 부산까지 왕복 거리 약 320km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아울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약 2000㎡)를 제공해 2022년까지 광양항 내 수소충전소 1개소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스위스 'H2Energy'에 엑시언트 기반의 대형 냉장냉동 및 일반냉동 수소전기트럭 공급 계약을 맺고 올해 상반기부터 수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기차 글로벌 강자로 성장하려면



기자 수첩

양성운 (산업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말썽인 현대·기아자동차가 차량 생산을 중단했다. 중국 자동차산업 허브인 우한의 공장이 생산을 멈추면서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지엠 등도 중국 현지에서 공급받은 전선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장을 멈춰세웠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와 달리 한국지엠의 경우 17~18일만 가동 중단하며 생산 물량 피해를 최소화했다.

반면,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 기술 개발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기본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 엔진의 핵심 부품인 피스톤링을 생산하는 유성기업이 노사갈등으로 파업하면서 자동차 생산라인을 '올스톱'한 사태를 경험했다. 1000원짜리 부품을 만드는 작은 업체였지만 후폭풍은 예상보다

컸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도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와이어링 하네스의 부품을 중국에서 80% 이상 조달받고 있었고, 이번 물량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사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19까지 바이러스 공포는 잇을만 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했다.

반면 도요타 등 글로벌 업체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했다. 실제 도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도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충격이 국내 업체만큼 크지 않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된다해도 이와 비슷한 사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강자로 성장하기 위해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함께 언제 발생할지 모를 다양한 위기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ysw@metroseoul.co.kr

NH저축은행, 꽃 나눔으로 화훼농가 돕는다

고객·임직원에 꽃 선물... 소비 촉진 나서

NH저축은행은 지난 14일 강남구 소재 본점영업부에서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꽃 나눔을 통해 그동안 거래해 준 고객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전 임직원에게 초콜릿 대신 관내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꽃으로 만든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등,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꽃 소비 촉진을 위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김건영 NH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꽃 소비 급감으로 인해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화훼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H저축은행은 앞으로도 사무실 내에 꽃 화분 비치, 임직원 꽃 생활화 운동 등 꽃 소



지난 14일 강남구 소재 NH저축은행 본점영업부에서 실시한 '꽃 나눔 행사'에서 김건영 NH저축은행 대표이사(사진 가운데)가 영업점 내방고객에게 꽃을 나눠주고 있다. /NH저축은행

비촉진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오늘의 운세 2월 17일 (음 1월 2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시시비비(是非非非)보다는 양보해보는 것이. **48년생** 돈은 쓰라고 버는 것이 아닌. **60년생** 앞만 보고 달리면 주변을 볼 수 없다. **72년생** 껌질을 깨뜨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84년생** 부족한 시간이니 남을 마워 마라.
- 37년생** 우는 아이는 우선 달래야 한다. **49년생** 기량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과도한 지출을 한다. **61년생** 자식이 인연을 만나니 할 일을 다 한 듯. **73년생** 마음이 우울하지만, 영입은 잘되어 준다. **85년생**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 3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50년생**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이 없다. **62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수확. **74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련둔 일을 처리. **86년생** 내 행동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 39년생**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이 온다. **51년생** 리더십의 본질은 솔선수범이다. **63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75년생**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한다. **87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 40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52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64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76년생** 유혹이 많으니 중심을 잘 잡자. **88년생** 피곤하니 휴식이 필요하다.
- 41년생** 과거 이여은 신용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53년생**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65년생** 흥망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77년생** 기억력이 쇠퇴하니 반드시 메모. **89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기는 하지 말도록.
- 42년생** 마음고생이 심하나 보답은 받는다. **54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66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보는 것도 좋다. **78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지출을 신중히. **90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할 것
- 43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는 가지 마라는데. **55년생** 소문난 잔치에 가 봐도 별 볼 일 없다. **67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79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9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을 조심
- 44년생** 하찮은 걱정은 접어 두라. **56년생** 고쳐 쓰기 힘든 것은 빨리 버려라. **68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80년생** 사소한 실수로 그동안 공 들였던 일이 위기이다. **92년생** 마음 가는 아성이 있다면 대화해보라.
- 45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닌지. **57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준다. **69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81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중일 마음이 불편. **93년생** 안부를 묻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 46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58년생** 가까이 있다고 소홀히 대하지 마라. **70년생** 행복을 남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82년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행해야 한다. **94년생** 붉은 카펫 위를 걷는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
- 47년생** 추위가 닥쳐오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 **59년생**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자. **71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예습에서 결정. **83년생**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반짝인다는 것을 명심. **95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변명만 다.

김상희의四季

시종득소(始終得所)

시종의 이치란 오행이 천간(天干)에서 시작하여 천간에서 막힘없이 생생유통하여 지지(地支)에 이른다. 또는 지지에서 시생하여 막힘없이 천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팔자가 생화(生化)로 끊임없이 구슬을 꿰듯이 합작(合作)하는 곳에서 시작하여 멈출 곳에서 멈추는 구조라면 쟁투하지 않고 유정하여 부귀하게 된다.

음력 2월에는 화가 많아 조금만 화가 뇌 관련 건강에 유의하고 똥똥한 사람은 치아 관련을 잘 살피길 바란다. 가을 생은 조직에서 상사의 조언을 신중히 받아들여라. 말대꾸하거나 뒤에서 씹다가 4월에 불이익을 당한다. 음력 3월에는 큰 인물이 될 아가가 탄생하고 시대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큰 인물이 수면에 떠오른다.

조선 시대의 민화에도 쥐가 나올 땐 풍요로움을 보여준다. 풍요가 가능한 건 미래를 보는 예지력과 앞날을 대비하는 준비성이다. 쥐의 예지력은 삼국사기의 신라 해공왕 기록을 보면 치악현에서 쥐 팔천 마리가 이동하는 이변이 있었다.

그해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고 이듬해 흉년이 들고 나서야 사람들은 쥐의 영리함을 알았다. 쥐가 배에서 내리면 폭풍이 온다는 속담은 위험을 감지하는 쥐의 능력을 알려준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미리 감지하는 이런 능력은 역에서 알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황재는 쥐의 것이 아니다. 오로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모으는 노력이다. 영화 중에 '나는 오늘만 보고 산다'는 대사가 있었다. 멋진 대사였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풍요롭기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고를 기울여야 한다. 내다보는 예지력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를 해보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확연히 달라진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발간 브라운 저 | a9press | 15,000원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스토쿠는 가로,세로,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정답

4				7	6
1	3		5		9
	9	5	2	4	3
2		6	8	7	5
9	7			3	2
5	4	9		3	6
4	6		3	5	2
3			9	8	6
	2	8			5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8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89호

단순 반복작업에 AI 적용하면 비정형 업무까지 '척척'

(로봇틱프로세스자동화·RPA)

미래기술 선도 트렌드

RPA 시장, 2022년 5조대 전망
국내의 기업 지사설립, 경쟁 돌입
"RPA, 노동력 부족 대안 될 것"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로봇소프트웨어(SW)인 로보틱프로세스자동화(RPA) 시장이 올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RPA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차세대 RPA 솔루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RPA 기업인 유아이패스의 한국 지사인 유아이패스코리아·AI RPA 전문업체인 그리드원은 기존 RPA 제품에 AI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솔트룩스는 RPA 개발업체인 시메이션과 AI RPA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개발한 제품을 최근 선보였다.

글로벌 RPA 시장 규모는 올해 3조 5300억원 정도에서 2022년까지 5조89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은 1000억원 규모로, KB하나은행·현대자동차·LG그룹·롯데



최근 RPA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RPA 관련 세미나가 잇따르고 있다. 백승현 유아이패스코리아 전무가 RPA 기술 동향과 도입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아이패스코리아

이커머스 등이 이미 RPA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드원 등 국내 기업과 유아이패스·오토메이션에니웨어 등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고 진출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더 많은 업무 자동화가 요구되면서 RPA 시장의 큰 폭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가트너가 발표한 '2020 10대 전략 IT 기술 트렌드' 보고서에서 RPA, 머신러닝 등 AI, 자동화 톨이 결합해 업무를

하는 초자동화 기술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RPA 솔루션이 AI와 결합하면 자연어 처리가 가능해져 챗봇과 연계돼 자동스크립트를 실행하기도 하고, 텍스트 분석, 비정형 문서, 스캔 파일, 이미지 등을 쉽게 인식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AI 학습 기능도 제공하면 업무의 자동화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유아이패스코리아는 AI의 로드맵을 공개하고 RPA인 '유아이패스 로봇'에 비정형 데이터 문서 인식, 의도 분석을

통한 챗봇 및 음성 인지능력 향상, 사용자 업무패턴에 대한 과학적 분석, 인터페이스(UI)에 대한 객체 인식 등 AI 기술을 접목시켜 나가고 있다.

우선 AI가 인간의 시각적인 인식 능력을 재현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로 시각적인 인식을 자동화하고,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AI가 장비의 결함이나 장애가 발생 가능한 내역을 사전에 예측한다. 또 사용자가 영수증, 상품명세서 등 다양한 문서를 입력해도 AI가 필요한 정보를 자동 추출하며, 대화인식 기술로 챗봇이나 구글 AI 등과 연계해 업무를 처리해준다. 유아이패스코리아 관계자는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초 안에 AI를 적용하고, 프로세스 마이닝, OCR(문자인식기술) 등 혁신적인 외부 AI 기술은 파트너십을 통해 업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드원은 혁신적인 기능의 AI 학습 방식을 적용한 AI RPA 솔루션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엔 선보일 신제품은 AI 자연어 처리 기능을 적용해 사용자가 채팅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개발해준다. 특히, AI 답러닝 기술을바

탕으로 업무에 필요한 문서, 문자, 이미지 데이터 등 AI 학습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자체 학습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리드원은 이미 지난해 AI RPA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도 유치했다.

솔트룩스는 자사의 AI 플랫폼과 시메이션의 '체크메이트(CheckMATE) RPA'를 연계해 AI RPA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AI 기반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였다.

솔트룩스는 자연어처리,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분석, 기계학습 기술 등을 제공하고 시메이션의 RPA, 자동화, 이미지 인식, 오브젝트 인식 기술을 합해 인공지능형 RPA를 개발했다. 솔트룩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RPA 기술은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AI 기술을 접목해 정형화되지 어려운 업무까지 자동화가 확대될 수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AI 기반 RPA가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개인화 시대, 대중은 어떻게 움직일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시대의 중심이 대중에서 개인으로 옮겨갔다. 힘을 잃은 대중은 자취를 감췄다. 모든 것이 개인화 된 시대에 대중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게바우어와 튀커는 '균중 사회'를 처음으로 예측한 귀스타브 르봉의 이론에서 출발해 변화하는 대중의 모습을 짚어나간다.

르봉을 비롯한 과거 이론가들은 개성을 잃은 군중이 권력자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공산주의나 나치즘은 군중심리가 낳은 비극을 잘 보여준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두 개의 균질화된 덩어리로 존재하지 않게 됐고 덩어리의 숫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다. 대중은 개인으로 파편화됐다. 웃이나 영화, 음식 등 모든 기호가 개인의 취향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중은 중



새로운 대중의 탄생

군터 게바우어, 스펠 튀커 지음/영정용 옮김/21세기북스

적을 감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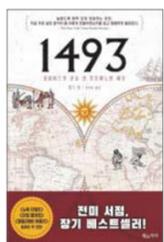
저자들은 대중이 사라지지 않고 단지 그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뉴미디어의 도움으로 지금의 대중은 과거보다 더 즉흥적이고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됐다.

한 덩어리의 대중도, 고립된 개개인도 없다.

384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hjk1@

1493

찰스 만 지음/최희숙 옮김/황소자리



저자는 콜럼버스야말로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 전반에 가장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온 인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콜럼버스 일행이 아메리카에 발을 디딘 이후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퍼뜨린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콜럼버스적 대전환.' 전 세계가 하나의 무역망 아래 편입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닻은 그렇게 내려졌다. 콜럼버스가 문을 연 호모제노센 세상.

784쪽, 2만5000원.

총보다 강한 실

카시아 세인트 클레어 지음/안진이 옮김/윙북



산업혁명엔 철이나 석탄이 아닌 직물을 동력으로 이뤄졌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100만명이 넘는 여성과 아이들이 방적 공장에서 일했다. 이들이 버는 돈은 빈곤층 가구 가계소득의 3분의 1에 달했다. 실과 직물은 기술 진보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이자 산업의 중심으로서 조용히 세계를 움직여왔다. 실은 총보다 강하다.

440쪽, 1만7800원.

과기부, 15종 연구·장비 국산화 추진

실험실 연구장비 61%美·日·독일제산·학·연 협력으로 제품개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연구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술 보유기관과 연구장비 기업이 주도하는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으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대부분이 외산으로 국내 장비산업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구장비의 61%는 미국·일본·독일 3개국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은 24.4%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연구장비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범용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연구자들이 외산 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이 확대 될 기회를 갖

〈중점 지원 연구개발장비 15종 및 국산화율 현황〉

광학현미경	공초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원자현미경
2.5%	1.4%	0.1%	5.6%	17.5%
3D스캐너	레이저발생장비	방사선물질측정기	유전자합성/분리장치	자기공명영상장치
8.8%	8.9%	10.2%	0	0
가스성분분석기	유도경합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고분해능이차이온질량분석기
7%	0	1.1%	0.1%	0

/과기정통부

기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장비 핵심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장비에 대해 성능 검증과 사업화까지 지원함으로써 연구장비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은 국내 100억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산화율이 낮았던 15종의 연구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토대로 ▲연구장비 핵심 요소기술·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사업 ▲공공기술 기반의 우수 장비기술 상용화 개발 사업 ▲장비 성능 검증 등 플랫폼을 지원하는 성능 고도화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사업공고를 하고, 3월 18일까지 5주간 과제 신청을 받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과기부, 4차산업혁명 이끌 인재 육성에 126억 투입

1년 기준 한 사람당 1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정보통신기술(ICT) 유망기술을 이끌 고급 인재를 육성 위해 올해 12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ICT 유망

기술 및 혁신성장 선도기술 분야 등 기술 선도국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석·박사생의 해외 연구·실무 경험 등을 통한 글로벌 고급인재(석·박사급) 육성을 위해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사업'을 17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년 기준으로 한 사람당 1억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교가 ICT 기술 선도국의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1년 과정의 공

동 연구 또는 인턴십 등을 설계하면 해당 대학교의 석·박사생이 해외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로 파견 기간은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모에 지원하려는 대학은 3월 31일까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MASERATI

ALMANAC 070-7840-1715
www.almanac.co.kr

“市 승격·민간공항 이전에 역량 집중... 행복무안 만들 것”

김산 무안군수를 만나다

무안군은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무안시 승격과 민간공항 이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었다고 있다. 군민과 함께 생동하는 행복무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산 무안군수를 만났다.



김산 무안군수

김군수의 첫 일성은 “올해는 군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 무안시 승격과 함께 융·복합 산업시대를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등 기반시설을 착실하게 만들어가겠다”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체에서 벗어나 지방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조류에 직면해 있는 만큼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적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해 무안군의 운영 성과는 어땠는지.

“역대 최대 규모인 222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안읍 도시재생사업, 무안군 보건소 이전신축,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항공특화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되는 등 미래 신 성장 산업발전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섰죠. 무안국제공항은 개항 이래 최대 이용객 90여만 명을 달성해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났습니다.”

-2020년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서남권의 중추도시이자 행정·문화·교통의 중심지인 무안군이 도청 소재

올해 미래 10년 준비하는 원년으로 미래먹거리 발굴 등 기반시설 구축 변화·개혁 적응... 새로운 기회 창출

지로서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남약 및 오룡지구 개발에 따른 도시형 행정수요와 농촌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안시 승격이 꼭 필요합니다. 도청소재지인 남약신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갖추고 무안시 승격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약 도시기반시설 확충, 청년주도형 인구유입 공모사업 추진으로 세대융합형 도·농 복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안읍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167억 원을 들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군립도서관, 작은 영화관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문화생활을 위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젠트리피케이션 즉 ‘동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료 상상을 제한하고 복합문화 전시공간, 창업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협체를 구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무안공항역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2023년 완공 예정인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20억 원, 자동출입국 심사대 6억 원 등 국비를 확보했고 관리동신축, 주차장 확대, 체크인 카운터 증설 등 공항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이용객 100만 돌파를 목표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해 가고 있으며 호남고속철 개통,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지역발전에도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항공특화 산업단지는 고부가가치의 항공관련 산업으로서 2019년 6월에 산업단지 입주계약(MOU) 100% 체결 이후 국토부로부터 항공특화 산업단지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67억 원, 10만 평 규모로서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항공특화 산업단지는 항공기 정비 산업으로서 1000여명 이상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

대됩니다.
-인구감소문제에 따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지난 2014년 처음으로 8만 명대에 진입한 무안군은 이후 8만2000 명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인구가 조금씩 줄기 시작해 2017년 8만 2872명이던 인구는 2018년 8만 1991명으로, 지난해에는 8만 1105명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무안군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은 물론 청년 인구를 끌어오겠습니다. 또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호남고속철도 KTX 경유에 따른 무안공항역 역세권 개발과 청년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과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등 다양한 청년정책도 펼칠 예정입니다.”

-명품 농수산물 정책은 무엇인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7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가도우미 제도 등 농업인들이 농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0년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에 담머리항, 도리포항 등 4곳이 선정되어 금년부터 3년간 국도비 305억 원, 군비 82억 원 등 총 387억 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어촌·어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연안에 감성돔, 전농어 등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안정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나지목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계신데

“특색 있는 관광자원화로 문화예술 관광사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겠다. 해안관광 일주도로, 노을길 관광 테마 공원 조성 등 노을과 힐링,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테마를 조성하겠다. 칠산대교, 천사대교와 연계해 ‘사람이 찾아오고 싶고 머물다 가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건설에 힘쓰겠다. 아울러 회산백련지 향토음식관 건립, 무안생태갯벌과학관 재정부, 해상안전체험관 운영 등 지역축제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끝으로 군민에게 한 말씀

“올해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예상되는 매우 중요한 한해로서 무안군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활력 넘치는 행복 무안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체찍질을 당부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광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버스 간격·배차 개선 출·퇴근시간 02번 버스 6대 추가운행

광주에서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버스를 이용한 출퇴근길이 편해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빛가람혁신도시를 오가는 좌석02번 버스의 운행간격을 단축하고 집중 배차한다고 16일 밝혔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40분~7시55분에는 기존 6~16분 간격을 5~10분 간

격으로,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52분~7시58분에는 기존 12~18분 간격을 10~13분 간격으로 단축한다.
출근시간대에는 2대, 퇴근시간대에는 4대 등 총 6대의 버스를 추가 운행한다.
이번 운행시간 조정은 출퇴근시간에 이용 승객이 많아 버스를 한 번에 타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상주시, 국민체육·건강생활지원 센터 짓는다

사업비 121억 투입 2022년 완공
9507㎡에 지상 3층 건물 2개동

상주시는 계산동에 ‘상주 9988 국민체육센터’ (제2국민체육센터)와 ‘상주 9988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착공해 오는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두 시설은 부지 면적 9,507㎡에 지상 3층짜리 건물 2개동(연면적 4,482㎡)으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121억원(국도비 52억원 포함)이다.



상주시 국민체육센터

제2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25m, 5레인)과 각종 헬스기기를 갖춘 헬스장,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설치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건강체험관, 체력측정실, 재활건강증진실이 들어선다.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정보를 얻고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북룡동에 위치한 기존 국민체육센터는 연간 25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상주(경북)=김홍희 기자 g2136@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0 | 해질 / 18:12

2월 17일 (월)
음력 : 1월 24일

수도권 날씨
-6 ~ -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8/-3
동두천 -7/-3
가평 -7/-2
피주 -8/-3
서울 -6/-4
양평 -4/-2
인천 -5/-4
수원 -4/-4
용인 -4/-4
평택 -4/-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도 5000억 투입, 장기미집행시설 410곳 정비

전남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시설 410개소 13㎢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 7월 1일 시행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5000억 원을 투입해 토지보상과 도로개설 등을 마친 결과다.

전남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4개소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보전녹지지역 지정, 국공유지 실효유용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일제조사와 시군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였다.
전남도는 앞으로 375개소 10㎢에 대해 토지매입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실효되지 않도록 하고 도심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3049개소 27㎢에 대해서도 시군 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서울시립미술관 600억 투입 리모델링... 대표 문화공간 탈바꿈

(서소문 본관)

2022년 공사시작 2024년 완공예정
건물 단열·방수 공사 등 대대적 정비
서울시, 공사와 함께 건물증축 검토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이 2년에 걸쳐 리모델링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된 지 20년이 돼 노후한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2024년 자동 공기조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건물 단열·방수 공사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선다. 신규 본관 건립도 병행해 서울시 대표 공공미술관으로서 랜드마크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국제규모의 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건물 단열 및 공조 시스템 미비로 해외 고가작품 전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8년 12월 한묵전에서는 1층 전시장 내 단열이 잘 되지 않아 결로현상이 일어나 전시작품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서소문본관에 설치된 수동 공조 시스템은 미술관 전용이 아닌 범용 공조기로 정상적인 온습도 제어가 어려우며 내구연한 9년



지난해 7월 12일 서울시립미술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데이비드 호크니 전'을 관람하기 위해 전시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현정 기자

을 초과해 교체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전시장 천장 단열재가 오래돼 떨어지거나 결로로 인해 건물 외벽에 대형 고드름이 생겨 추락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시는 건물의 단열·방수 기능을 개선하고 자동 공기조화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하 기계실, 지붕 상부, 천장 시

설, 전력 간선 등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전시장 복구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면 미술관 시설 유지 관리비를 매년 10~15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시설 유지 관리비는 2018년 15억2000만원, 2019년 15억9000만원, 올해 17억9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비

를 연간 4~5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전면 리모델링과 함께 건물 증축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최근 미디어,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비엔날레와 같은 대규모 국제 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시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또 서소문본관의 편의시설은 건물 연면적의 8% 수준에 불과하며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매년 불만사항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후 건립된 미술관의 아트숍 등 편의시설은 건물 연면적의 30~40%에 달한다. 서소문본관의 관람객수는 2017년 116만명, 2018년 63만명, 2019년 114만명으로 최근 3년 평균 연간 97만명 수준이다.

시는 건물 증축을 위해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현재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잔여 용적률이 없어 완화가 필요하다"며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거해 공개공지 조성·제공시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덕수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 포함된 전시동은 양각(시선이 지평면과 만드는 각) 제한 규정에 따라 수평 증축하고 그 외 지역에 위치한 사무동은 수직 증축할 계획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이내에 짓는 건물은 문화재 외곽경계의 일정한 높이에서 27도 높이로 올라다닐 때 그 아래 높이에 대해서만 개발을 허용하는 양각 27도 규정을 적용받는다.

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의 증·개축 공사비를 최소 395억원에서 최대 579억원으로 예상했다. 전시동만 리모델링할 경우 예상 소요 예산은 395억원이고 전시동 리모델링 및 수평 증축, 사무동 재건축 공사를 모두 시행하면 579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전시동 리모델링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서소문본관 인근에 있는 등기소와 어린이집 부지의 편입 가능성을 고려해 공사를 탄력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10월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 코로나19 지원 특별자금 2000억

중소·소상공인 대상 지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 경제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억원 등 모두 200억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원 등 총 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상 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이틀 만에 지원 규모를 넘어서 긴급히 1천3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게 됐다.

지난 12~13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중소기업은 62건에 203억원(평균 업체당 3억3천만원), 소상공인은 18건에 8억6000만원(평균 업체당 5000만원)을 신청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틀 만에 지원 규모를 넘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우리 경제가 중국 경기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 생산 차질 등 큰 피해가 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 신청하거나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성동~노원 잇는 도시철도, 2025년 개통

서울시,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총 연장 13.4km에 16개 정거장
금호산업, 호반산업 등 시행
지역균형 발전 큰 기여 기대

서울시는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3.4km에 16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60개월간 진행되며 오는 2025년 개통한다. 민간투자사업인 동북선 도시철도의 총 투자비는 1조5963억원이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시작해 경동시장, 고려대, 미아사거리, 월계, 하계, 은행사거리를 거쳐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한다.

왕십리역(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제기동역(1호선), 고려대



역(6호선), 미아사거리역(4호선), 월계역(1호선), 하계역(7호선), 상계역(4호선) 등 기존 8개 노선, 7개 역에서 환승할 수 있다.

공사는 1~4공구로 나뉘어 진행되며 금호산업, 호반산업, 현대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대명건설이 맡아 시행한

다. 현대로템은 신호, 통신, 궤도 등 전 구간 시스템 분야를 담당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데 이어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로부터 14일 사업 착수계를 제출받았다.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는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공사 신고, 도로굴착계획 심의, 도로점용허가 협의 및 지장물 이설, 부지 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동북선 도시철도가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동북선은 기존 노선과의 환승을 통해 서울 강남북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LED조명으로 교체

서울시설공단은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내 노후 도로조명 시설을 LED조명으로 바꾸는 공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노후화돼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기존 황색 나트륨 조명을 모두 철거한 후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한다. 새 LED 조명은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Dimming) 시스템을 도입, 터널 주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바꾼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터널 내 조명 개선을 통해 전기료를 절약하고 에너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기간 정릉터널 성산방향 3개 차로 중 1개 차로에 대한 부분 교통통제가



도로터널 현장점검 모습. /서울시설공단

진행된다.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는 성산 방향 3개 차선 중 3차선(우측 1개 차선)을 통제한다. 3월 10일부터 30일까지는 성산 방향 3개 차선 중 1차선(좌측 1개 차선)을 통제해 조명 교체 작업을 벌인다. 교통 통제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대리·퀵기사에 마스크 나눔

서울시는 17일부터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마스크 7500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스크 제공 장소는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 배달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시내 5곳의 '휴(休)서울노동자쉼터'(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개소(종로구 율곡로, 송파구 중대로) ▲노동자복지

관 2개소(은평구 통일로, 영등포구 국회대로)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등이다.

이외에도 청계천변에 위치한 노동복지시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도 노동자와 방문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준다.

시는 2월 초부터 전태일기념관 등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 600여개를 비치해 감염증 예

방에 힘쓰고 있다. 장시간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이동 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쉼터 5곳에 대해선 특별 방역도 완료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연중 개최하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도 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 예방책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물품을 지원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산업] 현대모비스정기이사회 주주가치·미래기술 극대화 08



[라이프] 홈플러스 '올라인' 강화 점포, 배송기지 탈바꿈

Life

낮설지만 신비로운... 밭길 닿지 않은 미지의 땅, 몽골



자브항일주 보르하린 사막

메트로 트래블

우리나라와 거리상 가까운 나라지만, 다소 낯선 여행지가 있다. 바로 몽골이다. 몽골은 최근 남들과 다른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깨끗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동 떨어져 확진자 1명 없는 클린 관광지이기도하다.

우리나라 면적의 14배 몽골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곳이 많다. 이미 '몽골여행' 하면 떠오르는 대중적인 여행지에 비해, 낮설고 생경한 몽골 여행지들이 눈여겨 볼 만하다.

몽골리아세븐데이즈 황용도 대표는 "그동안 '낮선 오지 여행'으로 소개되었던 몽골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몇몇 여행지로 여행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었다. 올해는 입소문 나면서 몽골로 떠나려는 여행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서몽골 대초원여행

서몽골 대초원여행은 몽골의 서쪽 끝, 국경과 맞닿은 '알타이 타왕복드 국립공원'은 사계절 내내 만년설을 만나는 여행이다. 가장 유명한 '후이픈 봉우리'를 비롯해 5개 산이 모여 있는 이 국립공원은 현지인의 손길도 거의 닿지 않는 곳이지만, 모험적인 세계 각

'낮선 오지 여행'으로 입소문 캠핑·트레킹·승마 즐길 수 있어 사막·만년설... 자연의 아름다움도

국의 여행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익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몽골 국내선과 차량으로 이동하며, 캠핑과 트레킹, 그리고 승마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 자브항일주, 하이르항 명산 트레킹
다큐멘터리 촬영지로 소개된 적 있는 '자브항 아이막'을 탐험하는 자브항 일주는 베일에 싸여있던 몽골 중심부를 탐험한다. 사막과 오아시스, 그리고 만년설산이 공존하는 곳에서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오브제를 만날 수 있다.

몽골에서 두 번째로 큰 아이막(우리나라 행정구역상 '도'에 해당)인 '고비알타이 아이막'으로 떠나는 네가지색 고비알타이와 몽골의 3대 명산 중 하나인 '아스랄트 하이르항'으로 떠나는 하이르항 명산 트레킹은 국내에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다. 남을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길이 기준이 되는 여행을 꿈꾼다면 하루라도 먼저 이곳으로 떠나자.

현재 몽골리아세븐데이즈는 업계에서 가장 다양한 몽골여행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몽골의 이색여행지



서몽골 대초원여행 차강골.



하이르항 명산트레킹 캠핑.

뿐만 아니라, 몽골을 처음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초원사막', '센트럴힐링', '고비사막일주'는 미지의 나라 몽골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 꾸준한 사랑을 받을 관광지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긴 시간 휴가를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금요일 하루만 휴가 내면 다녀올 수 있는 '몽골 밤도깨비 2박4일' 상품까지 새로 출시해 '클린 몽골, 어드벤처 몽골' 상품의 효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코레일 "KTX 타고 동해 여행 어때요"

KTX 연장 운행... 기차여행상품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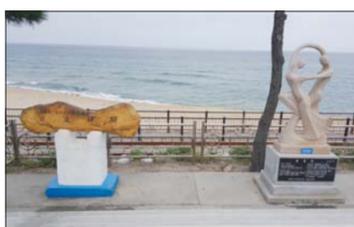
한국철도(코레일) 수도권동부본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동해역까지 KTX가 연장 운행됨에 따라 서울~동해까지 KTX를 타고 떠나는 기차여행상품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동해시 일대와 정동진 등 동해안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강릉역

에서 KTX 하차 후 연계차량을 탑승하거나 무궁화호로 환승해야만 했다.

코레일 수도권동부본부의 이번 연장 개통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되고 동해안 일대 관광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강원지역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3일 첫 출시하는 해당 상품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는 주암해변을 시



강릉 정동진역 전경.

/코레일

작으로 묵호등대가 있는 묵호항, 두타산과 청옥산을 배경으로 하는 무릉계곡, 마지막으로 정동진까지 방문하는 하루 일정으로 짜여진다.

/이민희 기자

한국여행업협회 “日 등 6개국 여행자제 권고 취소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유감 표명 여행업 생태계 무너지고 고용 '흔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는 지난 2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중국 이외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이라 발표한 6개 지역에 대해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한 건에 대해 국민과 여행업계에 혼란과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킨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는 감염 확산이 둔화되고 사망자가 없으며, 대통령 또한 국민들이 지나치게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시점에 상대국에게도 한국여

행을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 상호교류가 기본인 관광산업 근간을 흔드는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 후 외교부는 여행경보 단계 조정 계획이 없음을 밝혀 소비자와 업계간 분쟁을 촉발시켰다. 이번 사태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아 10만여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의 고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중수본은 이제부터 개인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국민의 불안한 심리 치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해외관광기관, 코로나19 타격에 대응 나서

북마리아나·마카오 등 적극 대처 필리핀 대통령 관광지 순방 나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필리핀 내 대표 관광지를 순방하며 필리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곳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예정이라고 2월 13일 필리핀관광부가 밝혔다.

필리핀관광부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보라카이, 세부, 보홀을 다음주 중 방문할 계획이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도 촬영한다는 계획을 전세계에 알렸다.

우리에게 사이판으로 알려진 북마리아나 제도 주지사는 1월 29일 수요일 이후로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여객기의 입국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국 외교부는 건강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모범사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전염병에 대한 국제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카오정부관광청은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이에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카오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월 27일 00시부터 후베이성 출신 방문객들을 마카오 밖으로 안내하고 후베이성 출신, 경유 방문객들의 입경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2월 10일에 26번째 27번째로 확진된 환자가 광둥성에서 마카오를 거쳐 1월 31일 에어 마카오 NX826 편으로 국내에 입국한 여정이 확인됨에 따라 마카오에서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는 23인에 대한 역학 조사를 즉시 실시하였고 이들의 소재가 확인된 국가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에 해외골프여행업계 '울상'

기존상품 변경·새로운 상품 출시 사이판·일본 등 골프장 어려움 겪어

"골프여행업계도 직격탄을 맞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종사자들의 고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A 해외골프 전문여행사 B사장은 한탄하며 "넋 놓고 볼 수 만은 없지 않느냐"며 "1~3인 위주의 골프전문여행사 및 관련업이 다 죽게 생겼다"고 정부차원과 여행관련 협회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해외골프 여행업계가 바짝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몇 전문여행사가 기존상품을 변경 및 새롭게 만들어 시장에 내놨다.

우선 가자골프(주)에은항공여행사는 오는 3월 19~22일 까지 'VIP고객초청 사이판 라오라오베이 골프 3박4일

(90홀)'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1, 2월 마케팅을 못해 상황을 지켜 볼 수 밖에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상품은 다시 기획해 연중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가자골프 김수호사장은 밝혔다.

작년 일본 '아소스카이블루골프리조트'와 계약한 일성여행사 계열 부라보골프 관계자는 '골프·숙박·온천·음식' 등 자랑거리가 많은 '아소스카이블루골프리조트'와 계약해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하려했으나 '노재팬' 및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봤다며 안타까워했다.

태국 후아힌 마제스티 크리크 컨트리 클럽 전문골프여행사 리치골프투어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건으로 방콕에서 가까운 골프장 영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골프전문여행사의 현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이민희 기자